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이 땅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 시사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송축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 된 성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3년 12월16일 (토) 제 1949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번영 복음’ 팩트체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빚어진 거짓 복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번영 복음 관련 신앙을 믿는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Lifeway Research 이사 스코트 맥코넬은 “지난 오 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교인의 신앙이 사실상 번영 복음의 가르침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단적인 믿음도 포함된다”라고 말한다. 맥코넬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생각(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롬 8:32])이 아니라,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있다.

번영 복음에 관해 알아야 할 아홉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번영 복음은 다양한 이름과 브랜드를 자랑한다.

번영 복음은 “건강과 부의 복음” 또는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쟁취하라” 등의 용어를 다 포함하는 모든 신학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많은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믿음의 말씀” (Word of Faith) 운동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추종자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현대 기독교 운동이다.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재정적으로 번영하고 신체적으로 복지를 누리기를 원하며, 믿음과 긍정적인 말, 특정 기독교 사역처에 대한 헌금이 바로 이 두 가지 축복을 증가시키는 비결이라고 가르친다. 다음은 스티븐 헌트의 설명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적 건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에 관한 교리는 번영 복음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건강과 부”가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갖는 신성한 권리이며, 이런 축복의 결과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패키지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지 죄만이 아니라 질병과 빈곤도 함께 제거했기 때문이다.

2. 번영 복음은 신사상으로 알려진 신비주의 운동에 뿌리를 둔다.

신사상(New Thought) 운동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정신철학이다. 명시적으로 기독교 사상은 아니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형이상학적 전통, 심리학 및 자기 계발 같은 신흥 분야의 영향을 받았다.

이 운동은 긍정적 사고(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져온다는 믿음), 끌어당김의 법칙(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생각, 바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리면서 오로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 결과, 바라는 결과를 이뤄내는 환경을 갖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마음에는 몸을 치유하고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신사상은 기독교 신비주의와 성경의 요소를 통합하지만, 이를 형이상학적 맥락에서 해석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 같은 성경 구절은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을 확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사상은 힌두교, 불교 및 기타 동양 철학의 사상까지 통합해서 혼합적인 영적 틀을 만든다.

〈3면으로 계속〉

문화 참여에 필요한 네 가지 ‘R’

교회가 문화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네 가지 주요 방식

Mere Orthodoxy에 실린 브래드 이스트(Brad East)의 에세이 “한 번 더, 교회와 문화”는 올해 나온 글 중에서 가장 통찰력이 번뜩인다. 이 글은 기독교왕국(Christendom, “사회, 문화, 법률, 예술, 가족, 정치 및 예배가 교회의 영향력으로 포화되고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정의될 때 기독교 문명에 부여하는 이름”)의 흥망성쇠에 대한 고찰로 시작한다. 그리고 1951년에 처음 출판된 리처드 니버의 고전 ‘그리스도와 문화’를 다시 살펴본다.

그리스도와 문화

니버는 그리스도인이 주변 문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개신교인에게 제시했다.

- 문화에 반대하는 그리스도
- 문화의 그리스도
- 문화 위의 그리스도
- 역설 속의 그리스도와 문화
-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니버의 분류법에 대한 개요는 내가 쓴 요약 및 비평을 참조하라.)

이스트는 미국 상황을 표준 규범으로 가정하는 한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복음주의적 개신교의 사고방식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비판은 돈 카슨이 니버의 작업을 재검토한 지점과 일치한다. “모든 것에 다 들어맞는 하나의” 사고방식을 반대하는 카슨은 성경이 각기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요소를 옹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억압받는 북한의 신도들에게 “문화를 변혁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가?”)

〈9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정윤명 목사

8면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SBS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4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 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1. 구약주해: 레위기 1:1~9
2. 신약주해: 갈라디아서 2:11~21
3. 논문제목: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차세대) 활성화 방안과 전략
4. 설교본문(하나 택일): 구약 - 사사기 2:1~10 4 제목/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약 - 골로새서 1:24 제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김요섭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4년 3월30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8회 총회기간(5월 21일~24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4년 5월 20일(월)~21일(화)
장소: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Burlingame, CA 9401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4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김요섭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0,21)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 (Rev. Joseph Y. Kim)
주소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전화 : 213-215-8523 / 이메일 laredeemer@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고시부 서기 : 김요섭 목사(Rev. Joseph Y. Kim) laredeemer@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발행인 칼럼

바쁘게 기쁘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선교사는 사역의 현장에서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게 또는 바쁘려면 한없이 바쁘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지극히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음을 깨달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후자의 바쁜 선교사가 되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태할 수 있는 선교 현장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생각하며 바쁜 선교사로 살겠다는 아름다운 다짐이 담겨있는 이메일이었다. 선교사님은 벌써 그 다짐대로 살아오셨기에 이미 선교 현장의 변화와 열매를 보여주고 계시다. 앞으로 그 선교사님이 그 바쁜 선교사역을 통해 이루어가실 일들이 또 기대된다.

멀리 파송된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 일상(日常)의 선교사들이다. 그 길이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 그 특징은 제한적인 시간이고 유한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삶이 아쉽든 아니든 이제부터는 각자에게 주어진 남아 있는 육체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나면 인생의 결산 보고를 해야 할 자리가 각자에게 기다리고 있다. 자칫하면 바쁜 삶이 지치는 삶이 될 수 있다. 바쁨 속에는 피곤함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언제나 같이 있다. 세상의 바쁨은 필연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바쁨은 다르다. 놀랍게도 샘솟는 기쁨이 그 바쁨과 함께 있다.

우리의 바쁨에 기쁨이 함께 있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때문이다. 그 천국을 생각하면 날마다 바빠도 좋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날마다 기쁠 수 있다. 당대(當代)의 대(大)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께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질문을 받으셨다. "네가 천국을 보았느냐?" 목사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을 확신하시면서 바쁘게 전국의 부흥회 현장을 누비셨고, 천국을 누리시면서 기쁘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다. 목사님은 평소 한 손을 꼭 쥐고 다니시곤 하셨단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니시냐고 물을 때에 "주님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요."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놀랍고도 실제적인 주님과 목사님과의 친밀감이여!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으셨기에 목사님은 육체의 남은 시간을 바쁘게 그리고 기쁘게 사역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육체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연말이 되니 그런 긴장감이 더 커진다. 육체의 남은 시간, 무엇에 집중할 것이며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하겠는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결국 지나갈 이 땅의 것들에 남은 시간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 영원히 거할 천국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옳다. 천국 집중과 함께 온 세상 다 버려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주님과 더욱 친하게 지내는 것이 맞다. 올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육체의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바쁘게 기쁘게 지내면 그날에 뼈아픈 후회는 없을 것이다.

시편으로 자녀에게 감정의 소중함을 가르치라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르치기 위해 성경 전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벤 사스는 The Vanishing American Adult(사라지고 있는 미국 어른)에서 회복력이 뛰어난 아이들로 키우는 사례를 제시한다. 그는 인내, 노력, 고난을 배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내내 장기간 관찰한 연장된 사춘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미국에 필요한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아이들이 회복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스의 말에 동의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회복력을 목표로 하는 순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도록 어떻게 도울까에 관한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되며,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하나는 어려운 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예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무너진 이 세상 때문에 상처받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든 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고 한다. 반면에, 자녀가 부서진 내면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무심코 자녀들이 감정을 꾹꾹 채우게 만든다.

그러나 정서적 회복력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보다 나은 방법은 성경에 있다. 우리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자녀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데 시편을 활용할 수 있다.

감정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감정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고통과 슬픔, 설렘을 느낀다. 이 모든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 뭔가를 말해 준다. 때때로 감정은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큰 개에게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한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처럼, 감정이 소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불안감이나 압도감과 같은 감정은 우리의 한계를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자녀로 하여금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좋은 것임을 인식하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슬프다"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그 즉시 등을 두드리며 입에 발린 말로 격려하지 말고, 시편을 가르치라. 너와 똑같이 슬퍼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에 신실하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을 시편으로 가르치라. 시편에는 구약성서의 서사와 평행을 이루는 내용이 많으며, 따라서 성경 속 인물들의 영혼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우리는 배반을 말하는 다윗을 시편에서 만난다(55편). 짧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려 주는 모세의 글도 있다(90편). 그리고 의심과 환멸을 겪는 에스라 사람 헤만을 본다(88편). 시편은 한마디로 구약의 신자들이 자신의 어려움, 감정, 시련, 의심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기도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모델로서 시편 앞으로 자녀를 데려갈 수 있다.

감정이 반드시 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탐닉해서도 안 된다. 때때로 감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의 새 장난감이나 운동 경기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낄 수 있다.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지 말라.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죄(탐심)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 주라. 질투심을 결코 슬프거나 행복한 감정과 똑같이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시편 4:4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아예 화를 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 죄에 굴복하지 않으며 화를 내는 방법, 곧 온전히 느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다. 시편 시인은 감정이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자녀가 분노든 또는 비슷한 과도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자신을 죄로 이끄는지 물어 보고, 그렇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치라. 시편 51편은 회개의 모델을 제시한다.

감정은 나눌 수 있다

시편 4:4이 분노를 마음에 담더라도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다른 시편에서는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시편이 고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이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내용이 집단이 부르짖는 기도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울부짖으며 회중으로서 겪는 고통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제심을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은 얼마든지 성경적이다. 자녀에게 감정을 가르칠 때, 그들의 감정을 듣고 싶어 하며 또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모든 감정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

〈1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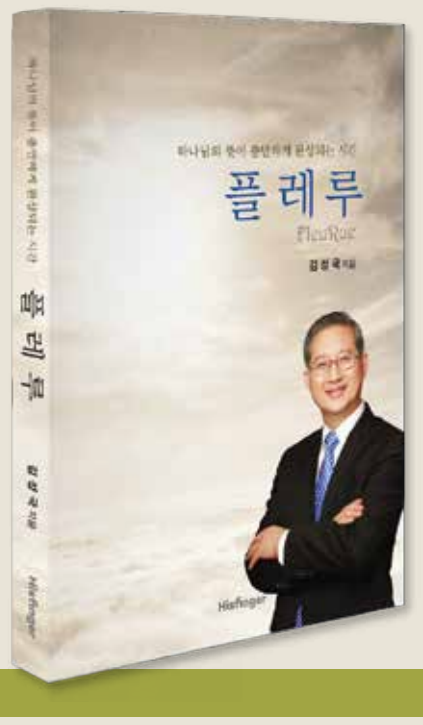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Hisfinger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u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번영 복음' 팩트체크

〈1면에서 계속〉

3. '번영 복음의 아버지'는 오클라호마 출신의 신유 설교자이다.

현대 번영 복음 교육의 아버지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오랄 로버츠(Oral Roberts)이다. 1918년 오클라호마 폰토톡 카운티에서 태어난 로버츠는 20세기 중반에 명성을 얻었으며, 오늘날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했다. 가난하게 자랐고 십대 때 결핵으로 고생했던 그는 부흥회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된 후 자신의 삶을 기독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복음 전파의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잠재력을 깨달은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 시청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신유 은사를 가진 이 복음 전도자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Oral Roberts University라는 학교를 시작했다. 전성기 시절에 그는 연간 수익 1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역을 총괄했다.

4. "믿음의 말씀"이 번영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로버츠가 신사상 원리와 신유 은사를 결합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라면, 번영 복음의 가장 저명한 전도자이자 "믿음의 말씀" 운동의 아버지는 케네스 E. 해긴(1917-2003)이다. 1962년에 해긴은 Kenneth Hagin Ministries를 설립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건강과 부, 기타 축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의 하나는 로고스(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와 레마(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구분이다. 그는 레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셀 우드브리지가 말했듯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믿음의 말씀 운동이야말로 20세기 후반에 미국 전역에 번영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5. "씨앗 믿음"이 번영 신학 운동의 초석이다.

"씨앗 믿음"(seed-faith) 교리는 번영 복음 설교자의 사역에 금전으로 기부하는 것이 결국 축복의 수확을 가져올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믿음의 행위로 사역에 금전의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전의 번영, 육체의 치유 또는 기타 형태의 은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축복의 형태로 그 씨앗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주장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헌금을 통해서 더 긴밀해지는 거래 관계라는 것이다.

로버츠는 세 단계 모델을 사용하여 씨앗 믿음 개념을 분명하게 했다. (1) 씨앗을 심는다: 가치 있는 것(보통 돈)을 사역에 씨앗으로 심는다. (2) 기적을 기대한다: 당신의 헌금이 하나님의 개입을 촉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3) 기적을 거둔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은 종종 물질적 또는 재정적 형태로 주어진다.

6. 텔레비전이 번영 복음 전파에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예배와 기독교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식인 텔레벤절리즘(Televangelism)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방송 규제가 완화되고 케이블 TV가 확대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 중 다수가 번영 복음 운동 및 그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

로버츠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매체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한때 그의 비행기를 조종하고 또 자동차 운전사였던 케네스 코플랜드도 나중에 가장 악명 높지만 (가장 부유한) 번영 설교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로버츠와 코플랜드는 짐과 타미 베니커(Jim and Tammy Faye Bakker), 베니 힌 (Benny Hinn),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 로버트 틸튼(Robert Tilton), 그리고 프레드 프라이서(Fred Price)를 포함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린 텔레비전 전도사들을 위한 길을 열었다. 21세기에 들어서 조엘 오스틴(Joel Osteen), 크레플로 달러(Creflo Dollar), 조이스 메이어(Joyce Meyer), T. D. 제이크스(T. D. Jakes), 그리고 폴라 화이트(Paula White) 등 가장 저명한 번영 복음 지도자들도 TV를 통해서 먼저 자신들의 이름을 알렸다.

7. 번영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 특히 부와 고통에 관한 내용을 무시한다.

많은 기독교학자와 윤리학자는 물질적 번영에 초점을 맞춘 번영 복음이 겸손, 연민, 고통의 당연함을 강조한 예수의 가르침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존 파이퍼 목사는 2005년 11월 1,000명이 넘는 대학생 모임에서 "나는 당신이 번영 복음, 즉 건강, 부, 돈을 가져다준다는 그런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다. "아주 미워합니다."

2014년에 파이퍼는 번영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여섯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 고난의 성경적 필요성과 고난의 당연함에 관한 진지한 교리의 부재
· 자기 부인이라는 명확하고 두드러진 교리의 부재
· 성경에 대한 진지한 설명의 부재
· 성경 속 긴장을 다루지 못함
· 사치를 즐기는 교회 지도자들
· 자기의 탁월함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소외시키는 것

8. 번영복음 신앙은 미국 신자들 사이에서 흔하다.

Lifeway Research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신자 중 절반 이상(52%)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지도자가 교회 또는 자선 단체에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리고 네 명 중 한 사람(24%)이 그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2017년 연구에서는 같은 질문에 38퍼센트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76% 대 69%),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45% 대 26%) 믿을 가능성이 2017년보다 더 높아졌다. 오늘날 교인 넷 중 셋(76%)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으며, 그중 43퍼센트는 그 주장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 응답자는 무려 45퍼센트였으며, 21퍼센트는 강력하게 동의했다.

9. 번영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2015년 The Gospel Coalition의 기사에서 기독교 윤리학자 데이비드 존스는 번영 복음 가르침의 다섯 가지 신학적 오류를 설명했다.

· 아브라함 언약은 물질적 권리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 예수님의 속죄는 물질적 빈곤이라는 "죄"까지 확장된다.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헌금한다.
· 믿음은 번영으로 이끄는 스스로 만들어 내는 영적 능력이다.
· 기도는 하나님께 번영을 달라고 강요하는 도구이다.

존스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 번영 복음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말한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빚어진 거짓 복음이다. 간단히 말해서, 번영 복음이 사실이라면 은혜는 쓸모없고 하나님은 무의미하며 만물의 척도는 사람으로 바뀐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죄, 나눔, 믿음, 기도 등 무엇을 이야기하든, 번영 신학 전도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돈으로 주고받는 거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

By Joe Carter, TGC

시 론

세상을 사는 지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킨넷 키프케모이라는 선수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다리에 문제가 생겨 더 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킨넷은 기절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몸을 뒹굴리며 몇 미터를 기어갔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여러 선수들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점을 향해 지나쳐 달려가는데 한 선수가 킨넷에게 다가가 부축해 안고 끌다시피 결승점을 향해 갔고 마침내 결승라인을 통과했다. 이 선수는 바로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이 마라톤대회에서 1등한 경력도 있고, 지난 해에는 2등 입상한 사이먼 체프로토라는 선수였다.

기자가 사이먼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이먼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고 있다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그냥 놔두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삶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단결과 우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날 무렵이면 자주 불리는 노래가 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가사로 불려지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다.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연말을 맞으면 마음의 먹먹함이 지긋이 눌려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

코비드-19 후유증 중의 하나가 후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어서 이 바이러스 침투를 받았던 사람 중에는 오랫동안 후각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람이 많았다. 시각, 청각도 그렇지만 특히 후각을 잃게 되면 식욕(食欲)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세익스피어는 "인간은 오감(五感)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타 종교도 그렇듯, 기독교신앙도, 오감을 통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 신앙은 외향적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깊이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는 것 같다.

소리공양(供養)이라고 할 정도로 산사의 풍경소리와 바람소리를 듣는 청각과 그윽한 차향(茶香)을 비롯해 흙마당을 거니는 발바닥 촉감같은 오감을 대하는 불교라든가, 분향단의 향이나 물을 뿌리는 축성수, 시각을 사로잡는 보다 강렬한 십자가의 형체를 가진 천주교에 비해 통성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웅변처럼 외쳐지는 설교라는 형식들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예배 속에서 못내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노랫말이 무시당할 정도로 바쁜 교회일정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래전 시골 초등학교 학예회 현장처럼 시끌벅적한 성탄절의 소그룹별(목장, 구역, 셀 등) 발표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따라하느라 아기예수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삶을 성찰해보기에는 무언가에 오염된 오감의 시대만 같아 씁쓸하다.

헨리 나우엔도 존경했던 화가이면서 영성 지도자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보르나주 탄광촌에서 사역할 때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인생의 본분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쓰면서, 그 핍절한 현장에서 광부와 극도로 가난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로 성찬식을 했다고 한다.

성탄과 송년은, 우리에게 묵상을 원하는 계절이다. 고흐의 그림에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영성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친밀함과 동정심과 위로의 마음으로 약한 사람을 감싸 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세상을 사는 지혜'의 가사를 묵상하며 오신 예수의 말구유를 찾아가는 절기가 되기 바란다. 마라토너 사이먼 체프로토는 마라톤의 결승점 앞에서 행동으로 이 지혜로운 묵상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djlee7777@gmail.com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4) Sermon Text: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a) Dates : May 20(Mon)~21(Tue), 2024
b)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김성국 목사
서 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헨델의 메시야를 만납시다

헨델은 1685년에 외과 의사인 아버지와 목사의 손녀인 어머니에게서 독일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음악과는 거리가 먼 집안에 한밤중에 어디선가 묘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는 그 음악 소리 나는 곳을 찾아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다락방에서 클레비에라는 건반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7살의 헨델을 발견했습니다. 조카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봤던 외삼촌이 부모 몰래 악기를 헨델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8살 때부터 동네 교회에서 오르간 교육을 받았고 17세 때엔 그 교회의 오르간 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으로 법대에 갔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음악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헨델의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알아본 앤 여왕의 후원으로 영국에 귀화하여 오페라 46곡과 오라토리오 23 작품을 남겼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로 우뚝 섰지만,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음악가의 질투와 음모로 여러 차례 파산하면서도 헨델은 저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질투를 은근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거듭되는 공연 실패와 재정적인 파산 상태로 건강마저 잃었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사의 온천요법을 알고도 헨델은 하루 9시간 이상 온천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의 집념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으로 돌아온 헨델에게 찰스 제닝스라는 오페라 작사자가 보내온 한 뭉치의 소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을 두지 않던 헨델이 마음이 곤고한 어느 날 제닝스의 흩어진 가사 들을 눈여겨보는 순간에 강력한 마음의 끌림과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렇지!!! 그래… 바로 이 분이야! 헨델은 자신도 모르게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냄 받은 이 메시야를 보라! 헨델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채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집사가 식사를 챙겨 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헨델은 마치 아주 높으신 분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매번 손도 대지 않는 식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훗날 헨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셨다!'라고… 헨델은 무려 259페이지의 대곡을 24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으로 SDG(Sola Deo Gloria) 싸인을 남겼습니다.

헨델의 메시야는 그의 나이 58세에 더블린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는 청중들이 몰려 왔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입장하기 위해서 부인들의 스커트 안에 넣는 후프 링을 빼어야 했고, 신사들의 장식품인 칼을 차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생애 중에 부활을 찬양하는 감동의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당시의 영국 왕 조지 2세가 감격 속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므로 모든 관중들도 함께 일어섰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도 할렐루야가 불리워질 때마다 모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메시야는 1742년 초연 때부터 오늘까지 281년 동안 한 번도 공연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계절에 정기적으로 연주되며 처음부터 모든 수익금은 자선헌금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헨델은 74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곡 연주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팔 소리가 울리리'가 시작될 때 심한 현기증을 겪고 부축을 받고 귀가했는데 며칠 후 '나는 성 수난일에 죽고 싶다'라고 했던 말대로 헨델은 그 날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매년 메시야를 연주한 지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전곡을 연주한 햇수가 이제 13회에 들어섰습니다. 필자는 전에는 메시야 연주회에 가면 매번 깊은 졸음에 빠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주제곡에 맞는 성화와 배경 그림들과 한글 가사가 뜨기 때문에 졸음에 빠질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이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기 위한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신앙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도 신앙을 만들어 냅니다. 불신 문화가 판을 치는 현대 속에서 세속적인 음악과 문화가 채색되기 전에 영감 깊은 그리스도의 문화로 채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세의 개혁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주권만 외치지 않고 문화 변혁을 이뤄야 종교 개혁이 성숙하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12월 17일 주일 오후 5시부터 현장 연주회와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메시야 연주회를 위해서 독자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영혼 속에서도 헨델을 만났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정윤명 목사
(글로벌 국제선교교회 연합 대표)

영적 승리와 분별

에베소서 6:10-18

12월 크리스마스 기간의 이곳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는 미국주류교회를 비롯한 한국, 타이완, 루마니아,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여러 민족 교회의 찬양과 경배로 진리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과 충만의 찬송이 되어지고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고난의 행군에서 영적인분별력으로 승리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1)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엡 6:10)

믿음의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 이 건강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주님께 나아가며, 영접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영적 연합을 굳게 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며,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야 하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게 세워지며 든든해져야 하는 것이다. (딤후 3:16-17)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 (엡 6:11)

그리스도인의 갑옷은 입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마치고 우리의 길을 마칠 때까지는 갑옷을 벗을 수 없다. 전투는 인간의 적이나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불안정한 영혼들을 속이는 수천 가지 방법을 가진 거짓 영과 싸우는 것이다. 악마는 우리 영혼에 속한 것들에 대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한다. 사탄의 침공에 적극 대항하면 사탄은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포기하면 사탄에게 무너지게 된다. 우리가 전신 갑옷을 불신한다면 사탄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적의 가장 맹렬한 공격을 견뎌야 했던 중무장한 군인들의 갑옷의 다양한 부분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 복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요 3:16) 그 사랑은 특히, 거짓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불의를 거절하는 용기의 행함이다.

2) 진실 즉,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갑옷의 다른 모든 부분을 지탱하여 준다. 진실함이 있는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유를 주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3)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적의 화살을 막는 의의 흉배이다.

우리 안에 심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마음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의는 공의를 나타내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성경적인 의는 개인의 도덕적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짓과 위선에 물들지 않는 영적 의로움,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 사회정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뜻을 가진다. (엡 6:14) 하나님의 의의 높은 기준은 사랑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하다. 사랑이라는 이름 으로 의를 허무는 많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적, 사회적, 지적, 관계적, 도덕적인 면, 즉 인간의 모든 면을 사랑하신다. 그 총체적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이 전 인격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즉,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의의 높은 기준은 사랑의 높을 기준을 반영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사랑은 겸손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과 마음이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사랑이시다. (고전 13:4-6)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드러움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단호함이 있는 사랑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다. 즉 참된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받아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 (고전 13:6)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의 불의한 행악자들의 형통과 성공을 불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권고를 받는다.(시편 37:1-2)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것이며 푸른채소 같이 쇠잔 할 것임이로다. (시37: 2) 그러나, 경건한 사람의 번영은 열매 맺는 나무의 번영과 같으나 (시 1:3), 악인의 번영은 풀과 같아서 수명이 짧아 곧 스스로 시들게 될 것이다. 외적인 번영은 사라지고 있으며, 그것이 제한된 삶 자체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그들의 승리는 짧지만 그들의 울음과 통곡은 영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살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일시적 번영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 가지 훌륭한 계율이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책무의 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시 37:3- 6).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을 순종해야 한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섭리, 약속, 은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세대를 섬기기 위한 부지런한 보살핌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열한 대로 살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책무를 신앙의 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의와 힘을 신뢰하려고 생각해 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풍성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되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시 37:3)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될 것이다.(시 37:4 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위로와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관대함, 자비로움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께 돌아와서 그들의 영원한 안식과 몫이신 그분 안에서 거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의 친절로 만족하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시 23:2) 우리는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시 37:3),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일함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즐거운 의무에도 거기에 부가된 약속이 있다. 그것은 가장 충만하고 귀중한 약속이며, 가장 힘든 봉사에도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 하셨다. 그분은 믿음의 성도의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으로 하셨다. 그분께서는 육체의 모든 식욕과 공상의 유머를 만족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소망과 새롭게 성결된 영혼의 모든 갈망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선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시 37:4)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모든 일에서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일, 심지어 가장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일이라도 잘 해결되어 우리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시 37:5, 6) 의무는 매우 간결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올바르게 행하면 우리는 쉬워질 것이다.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 16:3)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벧전 5:7).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지 않도록, 수단의 고안이나 목적에 대한 기대로 우리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벗어 버려야 한다. 그분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로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리하고 처리하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즉, "기도로 네 사정과 네 모든 염려를 여호와 앞에 아뢰라". (빌 4:6-7)

그런 다음 그분을 신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선하다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다한 다음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특히, 그가 네 명성을 돌보시며 너를 어려움에서 끌어내사 위로만이 아니라 명예와 영광으로 "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라" (시 37:6)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좋은 이름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권면이 있다.

4)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생명을 살리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고후 4: 7) 사탄의 궤계와 전략은 다양하여 거짓으로 진실을 위장하는 화려한 용어로 포장하여 속이고 유혹하게 된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후 4:4)

5)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는 믿음은 유혹의 화살을 소멸시킨다.

마귀는 사악하다. 영혼을 지옥 불에 태우게 하는 격렬한 유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 목표이다. 이러한 유혹의 시련 속에서도 복음에 순종하려는 동기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유혹의 시간에는 믿음만이 승리할수 있는 전부이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는 믿음은 모든 면에서 방패와 방어벽과 같다.

6) 구원은 우리의 투구가 되어야 한다. 구원에 대한 좋은 소망, 승리에 대한 성경적 소망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사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영적 전투에서 방어를 위해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투구가 있다.

7)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과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을 굴복시키고 억제한다. 그리고 그들이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불신과 오류에 정확히 대처한게된다. 잘 이해되고 올바르게 적용한 단 하나의 귀중한 말씀은 유혹이나 반대를 즉시 파괴하고 가장 강력한 대적을 굴복시킨다.

8) 기도로 우리 그리스도인 갑옷의 다른 모든 부분을 단단히 묶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책무와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에 대한 다른 의무도 있다.

〈15면으로 계속〉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야 할까요?

기쁜 소식!! 2024년,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을 왜곡된 성 정체성 혼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2024년 11월 투표에 부치기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11월 투표에 제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서명이 무려 58,000개가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이런 법적 서명운동을 앞에서 이끌어온 경험에 의하면, 캘리 정부가 무효화시키는 서명들이 많기에, 저희의 목표는 5월까지 8만 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야 할까요?

첫째: 여학생들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경쟁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물학적 남학생들이, 자신 스스로를 "여자"로 느낀다는 "느낌에 대한 주장"과 자신을 여성이라고 맹목적으로 "성 정체성 주장" 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학생들팀과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남학생들이 여자 스포츠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폐지합니다.

동시에, 여자 스포츠팀에서, 여학생들만의 고유 Privacy인 여자 라커룸과 화장실 사용을 여학생들/ 여성에게만 허용하게 합니다.

둘째 : 학부모 권리 존중!! 학교는 자녀들의 성 정체성 관련 변화 또는 성전환 수술 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린 십 대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돈에 따른 위기나 위협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법안들을 여러 개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이 청원서로 인해 저희가 밀고 있는 3가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학교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를 속이고 학생들이 학교안에서 부모 몰래 비밀리에 성정체성을 바꾸는 모든 실제 상황(이름 바꾸기, 젠더 이름 바꾸기, 신체를 바꾸기 위한 준비로 홀몬제 약 먹기, 생물학 신체를 바꾸는 수술 등등) 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학부모에게 알리게 함으로, 이런 끔찍한 해를 자녀들이 받지 않도록 학부모 / 보호자들이 미리 막을 수있게 합니다

셋째: 미성년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성전환 수술 및 화학적 거세 (몸을 뜯어 고치는) 돌이킬 수 없는 damage가 자녀들/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2023년 현 상황: 지난 1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13세, 더 어리게는 4세부터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공립학교의 세뇌교육과 미디어의 거짓 정보들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동성애자라고 선포했지만, 동시에, 일찍이 동성애 / 트랜스 젠더를 시도했던 학생들이 De-Transitioners(성전환 한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는 일이 급격히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답은, 십대 아이들을 성전환시키는 것은 ANTI-BIBLE일뿐 아니라, 비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할만큼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Chloe Cole의 경우, 자신에게 그 어떤 선생님도, 의사도 클로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당시 그녀가 그렇게 느꼈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학교나 의사와의 상담 자체가 온전히 "빨리 몸을 뜯어고쳐서 다른 성별로 만드는" 프로젝트와 같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클로이처럼 올바른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몸으로 바뀐 학생들이 자신들의 몸을 마치 Experiment (실험대상)처럼 취급한 의사들과 학교를 소송 걸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소식은 그런 소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함께 힘을 모아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 다음세대를 보호하는 매우 큰 법안들이 될 것입니다!

EASY AS 1-2-3! 1-2-3처럼 아주 간단한 법적 청원서 서명방법:

위에서 사진을 보세요. 또는 TVNEXT.org 가시면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TVNEXT.org 에 가셔서 법적 청원서(INITIATIVE MEASURE)를 인쇄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위 그림처럼, 박스칸에서 맨 위 오른쪽에 _____ COUNTY 라고 적혔는데, 거기에 카운티 적고 박스칸 숫자 적힌 (1) 칸속에 : 이름(First, Last), 집주소(Residence), 도시(City), 사인(Sign)하면 끝!! 가족들이나 친구들까지 총 5명이 서명할 수 있다.

DECLARATION OF CIRCULATOR: 이름, 주소, 사인받은 또는 사인한 날짜,

맨 아래에 다시 한번 사인한 날짜와 사인하면 끝!!

서명할 수 있는 자격:
- 유권자 등록(Registered to Vote)을 한 미국 시민권자
- 18세 이상
- 서명할때 주의점: 반드시 지킬 사항과 보낼 주소:
- Official Use Only 칸 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 반드시 사인했는지 꼭 확인. Declaration of Circulator 칸이 반드시 filled out, SIGN 되야함
- 지우개사용, "white out" 사용, correction tape 사용은 절대 금지. 무효화 됩니다!!

서명한 법적 청원서 부칠 주소:

TVNEXT.org 에 가셔서 가까운 주소를 찾으세요. 한인 개인분들/ 교회 차원 / 단체 차원으로 하시는 모든 서명된 청원서들을 저희단체 TVNEXT 에서 모아서 서명청원서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세히 검토한 후 각 카운티로 보내야 하기에, TVNEXT.org 에 가셔서 저희가 지정한 주소 중 여러분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한글 설명 영상 참조
tvnext.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May flower호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왔는가요? 아니면 네델란드에서 출발하였는지요?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오게 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로미타 권영화

청교도들이 미국에 온 이유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개인적인 이유로 왕비인 캐서린과 이혼하려 했으나 교황 클레멘트 7세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래도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하게 되자 교황이 국왕을 교회에서 출교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헨리 8세는 로마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포하고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Episcopal Church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이것은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독립교회로서 국교회는 반은 가톨릭적인 의식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다 더 철저하고 완전한 성경적 개혁을 부르짖고 등장한 무리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자기의 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경학자요 개혁신앙을 가진 청교도 지도자인 윌리암 틴데일을 잡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합니다.

그 후에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계승하나 16세의 어린 나이에 죽게되자 에드워드와 캐서린 사이의 딸 메리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녀는 다시 로마가톨릭으로 회귀를 시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존 후퍼, 존 브레드포드, 토마스 크렌머등이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300명에 가까운 퓨리탄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로 화영장에서 불타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을 사람들은 피의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토마스 크렌머는 "나는 로마 교황을 거부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이며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800명의 개혁자들이 스위스, 독일 등지의 유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 낙스(John Knox)를 비롯한 230여 명의 개혁자들은 프랑스로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도움으로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처음에는 중용정책을 펴다가 나중에 역시 청교도들을 핍박하여 결국은 청교도들은 견디다 못해 화란으로 가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2종류가 있는데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므로 그들과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가 부패했어도 영국 국교회에 남아서 개혁해 나가자는 청교도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이 엘리자베스 1세 때에 나라를 배신한 자라고 해서 핍박을 많이 받자 그들은 영국을 떠나 화란(네델란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10년간 살았으나 다시 화란을 떠나게 된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1) 정체성: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어를 다 잊어버리고 화란어를 쓰게 됩니다. 2) 화란 문화의 세속화: 청교도들의 자손들이 화란에서 세상 쾌락의 풍조에 물들어 세속화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0년 화란의 네이덴(Neiden) 항구에서 102명이 미국 신대륙의 소문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영국에서 떠났다고 말하는데 역사를 잘 공부 안 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오금로 102 (금정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대),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55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우)16899지번 : 죽전동 1312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노해로 50 (우편번호 : 01072) 지번 :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1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 서구 불로로 64 (도로명주소)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1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0번길 33
시은소교회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국민일보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11
www.eshinchon.org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1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8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83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부평성전 213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13(산곡동)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19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28647)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33 (사창동)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8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020년 제 6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서 '말 그릇' 책을 읽고, 불필요한 많은 말 보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성숙한 대화로 나의 말 그릇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독후감을 써서 영광스러운 최초 최우수상 수상 후 미주크리스천신문 사모단상 칼럼도 함께 시작되었다.

매년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도서를 소개함과 동시에 독서를 장려하고 글쓰기를 독려하는 세기언의 공모전은 세계에 흩어진 기독문인들의 귀한 소통의 장이 되어준다. 세기언의 권장도서 중 한권인 〈침묵〉은 현대 종교소설 분야에서 명작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1966년 작이다. 17세기 일본 에도시대에 행해진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잔혹한 박해의 모습과 그들을 돌보는 예수회 선교사제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노력, 일본신자들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배교자들의 모습이 그 시대 일본 천주교회를 통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소설의 제목인 〈침묵〉은 바로 주제이며 질문이다. 이 침묵은 믿는 이들이 겪는 많은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고 작가는 한 대담에서 얘기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침묵을 썼노라고 말했다.

'그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설령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로드리고; 예수나 마리아 성화를 밟는 후미에를 행한 신부)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작가는 이렇게 마지막 두 문장으로 소설의 결론을 제시한다.

아기예수 탄생의 빛나는 성탄의 밤은 침묵으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섬긴 자들로 완성되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내의 임신을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의로운 자 요셉은 현몽한 주의 사자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순종한 마리아의 무릎 꿇음은 마굿간의 예수를 만나게 했다.

그리고 본인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아내 엘리사벳 임신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강제로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아들 세례요한의 이름을 서판에 새기며 성령에 충만하여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언했다.

화려한 불빛과 캐롤이 거리를 가득 채우지만, 한 곳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가슴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의 자리를 떠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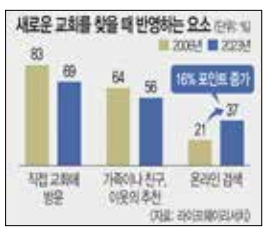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님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성탄이 되길 소망한다. 침묵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이들과 함께한 고요한 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한다.

songjoungim@gmail.com

고요한밤 거룩한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성도들 출석교회 바꿀 때 온라인 검색 참조 늘었다



시대 환경이 바뀌면서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 적잖은 변화상이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설문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최근 성도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디어의 발달이 새로운 교회를 찾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교회의 웹사이트'(37%)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29%)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같은 조사를 했던 2006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 17년 전 조사 당시 '인터넷, 온라인 검색 도구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반면 과거 조사에서 '직접 교회에 방문'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추천'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3%, 64%에 달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69%, 56%로 떨어졌다.

새로운 출석 교회를 결정하는 과정에 온라인 예배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06년 조사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이(88%) '예배 참석'이라고 답했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68%까지 떨어졌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9명(89%)이 대면예배에 참석하기 전 2회 이상 온라인예배를 시청한다고 답했다. 5회 이상 시청한 뒤 대면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4명(39%)이나 됐다.

한편, 교회를 옮긴 성도 10명 중 4명(41%)은 기존 교회에서 새 교회로 옮기는 동안 3개월 이상 예배 출석 중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조사(28%)에 비해 13% 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스콧 매코넬 총괄디렉터는 "새로운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도구와 창구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신앙 공동체를 탐구하게 된 것"이라며 "미디어 발달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결정하는 일은 오늘날 더 혼합적인 탐색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日도 빈대로 골머리… "상담 건수 역대 최대"

세계 각국이 빈대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빈대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NHK 보도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쿄 내 해충 방제업자 등으로 구성된 '도쿄도페스트컨트롤협회'에 접수된 빈대 상담 건수는 306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건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6건을 이미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 6년 전인 2017년(120건)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방제 전문가들은 "국내외 숙박시설에 묵게 될 경우 짐 가방을 큰 봉투에 담아 입구 부근에 놓고 중고 물품 구매 시에도 주의를 기해야 한다"며 "빈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책에 우선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NHK에 조언했다.

최근 프랑스 등 각국에서 빈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국내에서도 빈대가 출몰하는 사례가 빈번해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지역 빈대 발생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하마스 키운 건 이스라엘 돈" … 커지는 네타냐후 비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잔혹한 테러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한 데 이스라엘의 돈이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 사회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년여간 카타르는 가자 지구에 막대한 현금을 지급해왔는데, 이스라엘 총리도 금전적 지원을 용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CNN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카타르의 하마스 지원을 용인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승인 아래서 막대한 자금이 카타르를 통해 가자지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CNN은 지난 2018년부터 카타르가 가자 지구에 돈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2017년 가자지구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하면서 지급이 시작됐다고 당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매달 약 1500만 달러(약 196억원)의 현금이 채워진 여행 가방이 이스라엘 영토를 통해 가자 지구로 들어갔다.

카타르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금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타르의 무함마드 빈 압둘아지즈 알 쿨라이피 외교장관은 CNN에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가자지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을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전 총리직을 수행하던 2018년 8월 안보 내각 회의에서 이 거래를 승인했다. 당시 총리는 "(이스라엘) 남쪽 마을로 평온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가자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막기 위해 안보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 거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원조를 계속 허용한 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봤다.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출신인 아모스 길라드 소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며 "그들(하마스)에게 돈을 먹이면 길들여질 것이라는 착각도 있었다"고 전했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은 지난 10월 7일 발생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하마스가 더욱 강력해졌고, 더 잔혹한 공격을 하게 만들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세계 누리꾼이 올해 가장 많이 검색한 요리법은?

전세계 누리꾼들이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요리법은 한국의 '비빔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023년도 '올해의 검색어' 중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검색어는 누리꾼들이 올해 구글에서 검색한 용어 중 작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검색어를 뜻한다. 올 들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라는 것이다. '비빔밥 레시피' 검색량이 늘어난 것은 한식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국내 이용자의 레시피 부문 검색 순위는 '마늘장아찌' '굴 무침' '감자 샐러드' '무생채' '파김치' 순이었다. 비빔밥은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노래 부문에선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가 글로벌 5위에 올랐고, BTS의 정국이 부른 '세븐'이 10위에 올랐다. 국내에선 (여자)아이들의 '퀸카'가 1위에 올랐고, 뉴진스의 노래 4곡이 나란히 10위권에 포진했다. 글로벌 TV시리즈 순위에서는 한국의 '킹더랜드'와 '더 글로리'가 각각 6, 7위를 차지했다. 송혜교 주연의 복수극을 그린 '더 글로리'는 국내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과 순간을 담은 영상 '이어 인 서치(Years In Search)'에는 손흥민, BTS, 블랙핑크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 부문 올해 새로 추가된 '뜻 검색' 카테고리에서는 '잼버리'가 1위를 차지했다. 뉴진스의 노래 제목인 'ETA'와 'Ditto'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지구는 우리가 돕겠다" 美 아동 · 청소년, 정부에 소송

미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8~17세 어린이·청소년 18명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EPA는 기후 오염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화석 연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오염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미 서부에서 산불로 인한 주택 손실, 홍수 피해, 기후 변화에 따라 생명을 위협받으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15세의 노아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기후 위기의 영향은 이미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산불을 피해 도망치고, 홍수로 집을 잃고, 폭염에 더운 교실에서 공포에 떨면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8세의 닐라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지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건강한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어린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 지난 6월 몬태나주에서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도 지원했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에서 승소해 주 정부가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안면인식 등 통제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8일(현지시간) 'AI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규제법 마련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은 향후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시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되고 2년 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최종 합의문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AI 기술 규제 리더십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인 12~24개월간 시행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82. 정의조 (1901-1978)

정의조는 1901년 10월 5일에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시베리아' 기선을 타고 하와이 노동 이민을 떠난 27세의 아버지 정호영과 21세의 어머니와 누나 문이와 함께 세 살 때인 1904년 5월 20일에 하와이 호항에 도착했다. 그는 호항 인근의 에와 농장에서 성장했다. 1906년에 정의조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12세에 가정을 떠나 호항에 있던 한인기숙학교와 아이오라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27년에 오레곤 대학교를 나와 2년 뒤에 노스 다코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의조는 1930년에 박헤이즐과 결혼했다. 아내는 1남 6녀 중 밑에서 세 번째였다. 유치원 다닐 나이에 '한국부인과 여아 기숙관'에서 영어와 바느질과 가사를 배웠다. 이 '한국부인과 여아기숙관'은 미국 남감리교 재단이 이민자 자녀를 돌보는 돌봄 학교이면서 보육원이기도 하였는데 영어로는 수잔나 웨슬리 홈이라고 불렸다.

박헤이즐과 결혼한 다음 해인 1931년에 김유택 의사의 가정에서 호항의 유지들이 모여 청년운동이 필요한 줄로 인증하고 임시 임원을 선택하였다. 회장 이용직 목사, 서기 강영각, 재무 한길수, 사교원 김유택을 선정하였고, 정의조는 이싸라잉, 김이벨잉, 이동빈, 조광원, 홍한식, 이한식, 박종수와 함께 이사원으로 선임되었다.

YMCA

하와이 선교연회 윌리엄 프라이 감리사의 권유로 신학교를 나와 정의조는 1932년에 미국 남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산하 하와이 선교연회에 소속되었다. 하와이 선교연회는 그를 호항 YMCA로 파송하였고, 소년 사역에 집중했다.

이듬해 6월 2일 하오 6시 반에 누아누 청년회관 내에서 정의조 전도사의 사회로 신사 숙녀 합하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학생 졸업 축하 만찬회가 있었다. 이용직 목사가 기도한 후 감리사 푸라이 박사가 축하사를 전했으며, 대학 졸업생 여러 명이 답사하고 감상담을 나누었다. 졸업생에게 영광됨은 물론 호항 한인감리교회에 영광이 되었음은 대학교 졸업생 6명 전부와 중학교 졸업생 중 10명과 예비 중학생 졸업생은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본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정의조는 YMCA 사역 이외에도 하와이 섬의 하갈나우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고, 힐로 고등학교에서 산업 과목을 가르쳤다. 1936년까지 하와이 선교연회의 파송으로 정의조는 YMCA와 연계하여 한인감리교회에서도 사역하였다.

호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34년 1월에 푸라이 감리사의 사회로 계삭회를 열었다. 임두화 목사가 교회 기관의 발전 상황을 보고하였고, 그해 시무할 직원을 선정하였다. 본처 목사에 박종수와 김이제가 파송되었고, 정의조는 송치순, 문또라, 안정송과 함께 전도사로 파송되었으며, 정원명, 안원규, 문또라, 편성원과 함께 탁사로 파송되었고, 조제언, 박종수, 송정윤, 권도인, 안원규, 문또라, 황사근, 홍숙자, 남마태와 더불어 유사로 파송되었으며, 주일학교장으로도 파송되었다. 그 외 권사로 이승무, 황혜수, 박명준, 임정렬, 속장에 김신경, 송정윤, 이헬렌, 홍숙자, 김신일, 박에스더, 이정선, 권희경, 유진학, 엡윗 청년회장에 고복성, 부인보조회장에 임정렬이 임명되었다.

1934년 11월에 호항 한인감리교회 주일학교 전체가 사교실에 모여 희락회를 열었다. 주일학교장 정의조가 사회를 맡았고, 간단한 개회식 이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유희로 즐기고 다과를 나누었다.

그해 12월에 감리사 푸라이 박사 내외가 미리 설비한 누아누 청년회관 만찬석에 호항 한인감리교회 일반 직원을 청하여 식사를 한 후 본 교회 1934년 마지막 계삭회가 있었다. 프라이 감리사의 사회로 개회하고, 정의조가 서기로 선정되었다. 직원 보고가 있은 후 1935년도 직원을 선택하였을 때 정의조는 가주 연회 학습원으로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고, 유사와 탁사 그리고 주일학교장으로 임명됐다. 그날 파송과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는 목사에 박종수, 전도사에 정의조 외에 송치순, 황혜수, 안정송, 임정렬, 문또라 등이 있었다. 송구영신예배가 그달 31일에 있었는데 저녁에 많은 교인이 모여 간단하게 기도회를 한 후 대화와 유희 등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다가 밤 12시 자정에 신년을 맞이하였다.

1935년 1월 한 달은 바빴다. 첫 주일을 가정 주일로 지켰고, 세상 풍파를 떨쳐버리고 나아온 교우들의 가정이 많음으로 과거 몇 해 동안에 처음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그날에 새로 등록한 가정이 21가정이었다. 그달 19일에 신년 만찬회를 사교실에서 가졌다. 12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유사부에서 편성한 예산대로 거진 확충되었고, 부족한 것은 추후 활동하여 보충하기로 하였다. 상을 치우고 일반 남녀노소가 기쁨을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본 예배당과 국어학교실과 사교실 등을 1,000달러 예산으로 수리할 터였는데 벌써 공역에 착수하여 2월 선교연회 이전으로 완전히 끝내기로 하였다. 둘째 주일 오후에 부인보조회 정기회로 모여 1년간 시무할 회장 안정송, 부회장 이금우 등을 선정하였다. 그달 27일 주일 오후에 엡윗 청년회가 하나우마 해변에 나가 교제한 후 회장 박관선, 부회장 남마태 등을 뽑았다.

그해 2월에 교회 건물 수리를 마쳤다. 예배당은 안벽에 풀내스트봇을 부치고 칠을 하였고, 전등을 달았으며, 바깥은 두 번 칠하고 모래를 뿌리고 지붕을 고치고 검은 칠을 하였다. 국어학교는 앞으로 유리창을 더 늘이고 안과 밖을 두 번 칠을 하였고, 사교실도 마루와 벽을 칠하였고, 접는 의자 70개를 감리사 푸라이 박사가 사서 보냈다. 이렇게 건축 기관들을 일신하게 수리하여 신건축이나 다름없는데 공역비가 1,000달러에 달하여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담당하고, 본 교회에서는 100달러가량을 담당하기로 했다.

그해 3월에 하와이 연회가 호항에서 있었다. 6일 오후 4시 30분에 호항 한인감리교회 부인회가 감독과 연회원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교실에서 간단한 순서와 다과를 준비했다. 이동빈 목사의 딸 옥인의 삼중 독창은 회중의 흥기가 도도하였다. 8일 오전 8시 30분에 감독이 기도회를 주장하였고, 목사들의 보고가 있은 후 미국 종군 목사의 연회 환영사가 있었다. 12시에는 기념사진을 찍었고, 식당에 들어가 교회 부인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었다. 오후 2시에 각 위원회가 모였고, 저녁 6시 30분에는 여자 청년회관에서 설비한 연회 만찬회가 있었는데 300여 명이 모여 식사하였고, 식사 후에 재미있는 순서가 있었다. 9일 오전 8시 30분에 감독이 기도회를 주장하였다. 하와이 절금회장 한 목사의 절금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그 후에 연회관계, 과정 시험, 주일학교와 청년회, 안식일 등 각 위원의 보고가 있었다. 저녁 7시 30분에 와히아와 교회에서 감독일행을 환영하였는데 총무 콜스태 박사가 설교하였다. 10일 주일 아침 11시에 호항 백인 제일예배당에서 호항 감리교회가 연합하여 연회 예배를 드렸다. 감독 베커 박사가 설교하였고, 저녁에도 역시 같은 예배당에 연합예배로 모여 콜스테 박사가 설교하였으며, 호항 한인 감리교회 찬양대 40여 남녀가 찬양하였으며, 예배를 드린 후 정의조에게 집사 목사로 안수하였고, 그는 준회원이 되었다.

그해 11월 20일 수요일 하오 6시에 감리사 프라이 박사 내외의 초대로 계삭회 회원이 모여 만찬이 있은 후 계삭회를 열었다. 중요 직원의 재미로운 보고가 있은 후 명년도 직원을 선정하였다. 정의조는 탁사로 선정되었다. 기타 임원으로는 전도사에 송치순, 황혜수, 안시택, 권사에 이승무, 송정윤, 탁사에 이정근, 편성운, 안원규, 정원명, 유사에 박종수(회계), 조제은, 안원규, 이정두, 남마태, 황사근, 권도인(부장), 장형신, 심영신, 최혜림, 주일학교장에 남마태, 웹윗 청년회장에 고복성, 부인보조회장에 심영신이 있었다.

힐로 한인감리교회 목사

1937년 2월에 장로 목사가 되어 정회원이 된 정의조는 하와이섬의 힐로 구역으로 파송을 받아 힐로 한인감리교회와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힐로 교회에서는 17년을 같이 지냈던 이관묵 목사는 섭섭하게 전별하게 되었고, 새로 임명된 정의조는 환영하게 되어 그해 3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전도사 전익서의 사회로 전별회와 환영회를 한꺼번에 열었다. 전별 환영회 후 신신루청찬관에서 피흥선의 인도로 90명 교우가 오찬을 나누었다.

정의조는 위의 교회에서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국어로 설교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제국이 진주만을 폭격하므로 세계 제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타지방에서 온 군인과 군속과 다른 영어권 감리교인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자 영어로 설교하면서 한국어로 설교를 요약했다. 그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른바 이중 언어 목회자로서 마지막 목사였다.

세계 제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정의조는 장어 프로그램에 관여했고, 화산

힐로 한인감리교회 (1945년)

지역에 설치된 킬라웨아 군인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한국인 포로 군종목사로 활동하였다. 1944년 1월 첫 주일을 가정 주일로 지키면서 30여 명의 해군과 육군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후 기념사진을 찍었고, 부인들이 준비한 한국 음식으로 점심을 나누었다. 정의조는 그달부터 입교 공부반을 조직하여 '내 교회'라는 책자로 공부하였는데 부활주일에 입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정의조 목사 내외가 결혼한 지 14년이 되던 그해 2월 14일에 교회에서 결혼 14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 후 12일 주일 아침에 호항 한인감리교회에서 정의조 목사가 '행복을 구함'이란 제목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하였다. 한인들에게 적당한 말씀을 하였으므로 일반 교인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달에 베커 감독과 푸라이 감리사와 종군 목사 쿡이 정의조가 목회하는 힐로를 심방했다. 본처 종군 목사 실버맨과 협력하여 난일노 여관에서 환영 만찬회를 한 후 감독의 인도하에 비공식 토론회가 있었다.

정의조는 1945년 7월에 힐로 지역을 떠났으므로 8년간 위의 교회를 섬겼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인 1937년 2월에 힐로 한인감리교회에 학습교인이 76명었고, 세례교인이 58명이었고,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는 학습교인이 36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4명이었는데 그가 그만두기 1년 전인 1944년 2월에 힐로 한인감리교회에 학습교인은 보고가 없었고, 세례교인이 24명이었고,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는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정의조는 1945년 7월에 호항 제일한인감리교회로 파송받아 7년간 목회하였고, 1952년에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아 5년간 섬겼다. 1958년에 그는 호항에서 굳월 인더스트리즈를 조직하고 최초 행정 디렉터로서 1967년까지 재직했고, 그 해 오아후섬 가하루 연합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아 2년간 사역하였다. 1968년에 그는 호항에서 '민주주의 소리 상'을 받았고, 호항 노인 위원회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정의조는 1969년에 은퇴하면서 상항으로 이동하여 상항 굳월 인더스트리즈에서 직업 상담인으로 활동했으며, 1971년에 상항 인근 오크랜드에 있는 같은 기관의 인사 디렉터로 섬겼다. 1977년에 호항으로 돌아온 그는 이듬해인 1978년 7월 3일에 7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9: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 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찬 양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 도 회: 화-토 오전 5:30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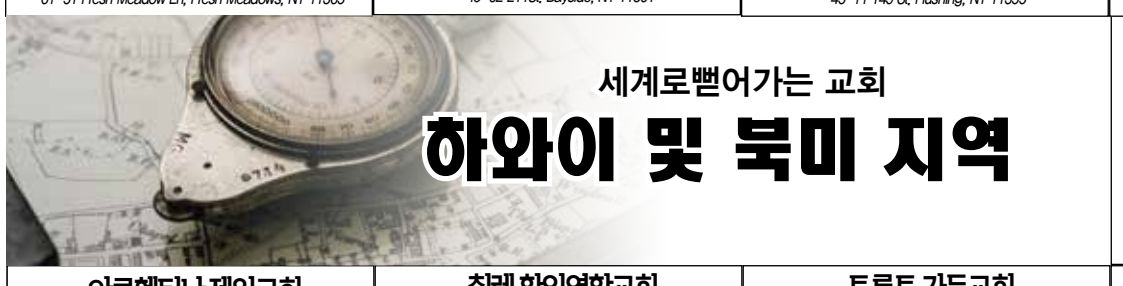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c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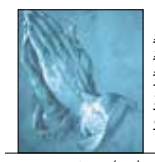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7장 기도의 형식과 소리 내어 하는 기도와 관련된 기도의 본질

에베소서 6장 8절에 대한 주석과 방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엡 6:18). 이는 환경이 허락될 때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감당해야 할 지속적인 의무이다.

1.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맡겨야 할 기도의 형식과 내용

본문은 모든 신자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곧 우리의 형편과 필요가 요구에 따라, 모든 방법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분명 우리의 기도는 고정된 틀로 국한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다양성은 우리와 교회의 다양한 형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기도문을 읽으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곧 은혜와 간구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올바르게 기도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미 그것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부르심, 혹은 상태에 따라 자신들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은사(the gift of prayer)'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사 59:11), '두루미처럼 소리 내어 울 수밖에 없는'(렘 8:7) 시험들과 버림받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고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상한 마음으로 슬피 울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때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의미를 알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도문만을 외우는 사람들은 참된 기도의 본질에 대해, 적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무지하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삶의 다양한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간구들은 그 기도 안에 조화롭지 못한 소음에 불과하다.

2.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1)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의 신에게 의존하고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하거나 그런 자연적인 힘 아래서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죽음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말한다.

2)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계획하셨으며, 그들이 기도할 때 복을 주신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죄를 범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3) 참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형식화된 기도문은 받아들여질 만한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성령의 도움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가르침을 넘어, 신자들에게 형식화된 기도문을 강요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무지의 결과이다.

*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이다.

(1) 첫째 공개적으로 죄의 세력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시련이나 고통에 처해 있거나 다른 질병들에 걸리지 않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계획은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형식화된 기도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느낌이나 생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황에 맞지 않는 기도문을 읽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기도문을 부적(Charm)과 같으며, 그들의 생각은 그런 기도문으로 인해 혼란해져서, 심지어 자연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도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깨우지 못하며, 그런 기도는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에 자신을 맡기는 것일 뿐이다.

(2) 둘째 가르침과 말씀의 능력이나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느끼고 기도해야겠다고 양심에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들의 게으름이나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과 양심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자극받지 못해서, 실제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조명과 은혜를 통해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든 간에 구해야 할 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식적인 기도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진보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어른도 변할 수 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성품치유 여행

최근에 한국의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쓴 『성품이노베이션(나를 찾아 떠나는 성품치유)』을 전교인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성품교육의 고전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 책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여전히 많은 분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성품치유란, "나의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치유의 과정이자,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감정·행동을 좋은 생각·감정·행동으로 바꾸는 훈련(이영숙, 2005)"입니다. 이미 성품이 다 자라 바꿀 수 없을 거로 생각하는 어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성품치유는 좋은 성품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픈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성품을 가르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로 고통받거나 현실 속 억압에 갇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늘 주저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존감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미루는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관계가 깨져 외로움과 우울함을 앓고 있는 사람들 등등. 저마다 마음의 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불행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내면의 근원적인 상처나 성품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쉽게 덮어두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또 어떤 이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심리나 고차원적인 철학에 기대어 이론과 실제를 지식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 분의 좋으신 성품을 알 때, 가장 깊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품치유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용납하며 조금씩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을 통해 상처들이 치유되어 희망을 품고, 억압이 풀어져 긍정의 힘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더 많은 분이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영숙 박사의 성품치유 여행〉 칼럼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상처에 대한 다양한 교육학적 견해와 구체적인 성품치유 방법, 그리고 지난 16년간의 기적적인 사례를 통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우리 삶의 단면들이 하나하나 이노베이션 되는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품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을 더 좋은 방법으로 잘 표현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성품치유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갖고 있고, 표현해 왔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바꿔야 하는 부분은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성품들은 인간관계를 막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성품치유는 과거의 상처에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미래에 만날 후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떠날 성품치유 여행이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새로운 만남을 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성품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봅시다.

* 좋은성품 부모교육, 좋은성품 자녀 세우기, 좋은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 GTMU(Good Tree Mission University) 캘리포니아 ECE(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전문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룹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현장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아름다운 끝맺음"

12월이 되면 누구나 "끝맺음"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월에 시작하여 순식간에 12월, 곧 한 해의 끝의 달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부득불 우리는 한해의 끝맺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라는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끝맺음의 일들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 가는 수많은 끝맺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감정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과 교회 울타리 밖에서 수많은 끝의 관계를 경험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과의 끝맺음은 아름답고 그립고 지금도 끝맺음의 아름다운 여운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끝맺음이 아름답지 못하여 피차간에 오랫동안 불편함과 그리움을 동반한 고통을 경험하는 끝맺음들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끝맺음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전능한 섭리자'라고 전해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의 시작도 아름답게 끝맺음도 아름답게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끝맺음을 아름답도록 도우시는 섬세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시작과 끝맺음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예수님은 아름다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고 아름다운 끝맺음을 가능케 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이 될 무게 있는 표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실 모든 화장실에 붙어 있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정말 많은 여행자들에게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 주는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물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생활 표어입니다. 저는 여러해 전 이 표어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끝맺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물다가 가고 난 다음에도 아름다운 여운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 이후의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며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짧은 표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알파로 오셨고 아름다운 오메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아름다운 사건의 여운이 지금까지 강하게 남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지금까지 아주 강하게 아름다운 여운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12월 금년의 끝 달의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탄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끝맺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 시인 천상병 님의 시로 목회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cyd777@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총회 및 제 9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빠르고, 바르게, 따르게 하는 언론이 되 길"

우수상 조진석 목사, 임보라 사모, 윤주미 성도

세기언 총회와 신앙도서 공모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기언 2023 총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2023년 정기총회 및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는 임승쾌 장로(크리스천 타임스 발행인, 샌프란시스코)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승쾌 회장은 "미국의 상황이 기독교가 밀려나는 것 같다. 북가주지역 교회들이 320개정도 있었는데 현재 26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을 맡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시대 기독언론이 건강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기언은 신임 임승쾌 회장을 포함 제26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조명환 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이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 이영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을, 서기에 윤우경 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 회계에 서인실 크리스찬투데이 사장을 선출했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 위클리 발행인)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조명환 목사는 "우리 협회가 금년 25주년이다. 1998년 이정근 목사님, 서종천 목사님과 제가 창립발기인이 되어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다. 처음엔 미주기독언론협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고 박재호 목사님이 발행하신 남미복음신문과 유럽, 호주 등지의 한인기독언론이 조인하면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란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부침의 역사 속에 꿋꿋하게 살아남은 '남은 자'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훌륭하다. 서로 힘을 모으고 격려하면서 세기언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기도에 이어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가 '복된 좋은 소식의 파수꾼(이사야 52:7~1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기독언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세상의 위기를 먼저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갖춰 신속히 전하는 역할, 환경에 지배 받지 않고 진실을 바르게 전하는 역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반응하며 따르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서종천 목사(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의 축도로 마쳤다.

〈제 9회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이어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열린 2부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에서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사 LA 지사장)는 도서 선정 및 시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에 총 29편이 최종심사에 올랐다. 남가주 뿐 아니라 미 동부, 캐나다,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했다.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어떤 분은 책을 구할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와 책을 보내주기도 했다."며 많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심사를 맡은 백승철 목사(문학평론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는 "올해 가장 많은 수상자가 나왔고 응모작의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선정이 쉽지 않았다"는 심사 소감을 밝히고 "올해는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다. 먼저 9회째 이르러 처음으로 목회자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두 번째는 사모들이 글을 많이 보내왔다. 이번에도 두 명의 사모가 수상을 했다. 사모가 책을 읽으면 그 영향력이 목회자, 성도로 이어지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이 이제 작가들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과 독후감 수준이 상당히 평준화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회째 가장 많은 수상자를 냈다. 그만큼 질이 높아졌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총 8명 중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이 시상식에 직접 참가했으며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제25대 세기언 회장)가 직접 꽃다발과 상금을 전했다. 이날 수상자는 ▲우수상 조진석 목사(주의길교회, CA), 임보라 사모(북가주새누리교회, CA), 윤주미 성도(베델교회, CA) ▲장려상 양유나 집사(생수의강선교교회, CA), 임지영 집사 (얼바인주교회, CA), 임은아 집사 (임마누엘장로교회, CA), 구계자 사모 (뉴욕광염교회, NY), 한미란 집사(가스펠교회, CA) 수상자들의 자세한 소감은 www.chpress.net에서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문화 참여에 필요한 네 가지 'R'

〈1면에서 계속〉

신실한 존재?

이스트는 계속해서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다른 유형을 찾아낸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James Davison Hunter)의 To Change the World도 그중 하나다. 헌터는 (1)방어력(Defensive Against), (2)적실성(Relevance To), (3)순결성(Purity From)이라는 세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을 설명한 다음에 대안으로 (4)내부의 신실한 존재(Faithful Presence Within)라는 방식을 제시한다. 헌터는 신실한 존재가 대사명에 대한 순종일 뿐 아니라, 긍정과 대조를 모두 포함하여 문화에서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은 무엇이든 전복시키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스트는 헌터의 작업을 인정하지만, 거기에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1. 충분히 글로벌하지 않다. 미국이라는 맥락에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 충분히 역사적이지 않다. 오늘날의 세속성 정착을 교회 역사에서 만나는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라고 가정한다.
3. 충분히 폭넓지 않다. 중상류층과 관련된 전문직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므로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적용을 회피한다.
4. 충분히 경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 금지된 기관과 직업에 대한 경계선을 제대로 긋지 않으므로 예리한 모순이 요구되는 미묘한 삶의 영역을 놓치고 있다.

앞에 놓인 더 나은 길

이스트는 우리가 니버와 헌터 및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건 오로지 하나의 "올바른" 유형, 자세 또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고집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교회가 문화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네 가지 주요 방식이 있다.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중복되고 본질적으로 서로 비경쟁적이다.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는 전적으로 콘텍스트와 콘텐츠에 달려있다. 교회가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같은 공동체에 있든, 다른 공동체에 있든, 더 큰 교회의 개별 구성원에 있든, 모두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스트의 작업이 가진 장점은 폭이다. 우리는 전근대와 포스트모던, 확립된 것과 해체된 것, 특권을 가진 것과 박해받는 것 등 가능한 모든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각각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는 네 가지 방식을 네 개의 R로 요약한다.

1. Resistance(저항)

"언제 어디서나 불의와 우상숭배가 발견되는 곳에서 교회는 저항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회가 목소리를 높일 사회적 권력이나 정치적 명성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현존하는 권력에 '반대'하거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 정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우호적일 때에도, 심지어 정권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할 때도, 저항이라는 과업은 필요하다. 저항은 다년생이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순전한 인내뿐이다.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2. Repentance(회개)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저지르는 죄와 범죄, 실패를 회개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즉, 교회가 보편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불의와 우상숭배는 무엇보다도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확실하게 발견된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서 발견되는 부패와 사악함을 '거스르며' 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상태로 살라는 뜻이다. … 복음의 신뢰성이 교회의 실패 때문에 위협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리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더 끔찍한 경우는 그 부패를 은폐하려는 태도로 인해서 복음의 신뢰성이 위협받는다."

3. Reception(수용)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받도록 부름 받았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한 세상은 선하다. 그리고 오로지 그분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의 주인이시다. … 간단히 말해, 세상은 결코 기독교 신앙에서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중요한 지식과 귀중한 유물로 가득하다. (물론 궁극적인 근원은 바울의 말 대로 그리스도이다.) 신자들은 결코 순진하거나 무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경우에도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에 겸손히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4. Reform(개혁)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이다. 그것은 마음과 지성, 몸, 영혼에 다 전달된다. 말씀은 농민과 하인의 문제뿐 아니라 상인과 치안판사의 문제도 다룬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의를, 민족들 가운데 정의를 명령한다. 거기에는 분리의 벽이 없다.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복음은 한 마디로 개혁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사물이 있는 방식 안에 새로운 조정을 생성한다. … 때와 장소가 적절할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이뤄지는 복음 선포는 문화를 뼛골까지 잘라낸다. 그럴 때 문화는 결코 더 이상 동일할 수 없다. 심지어 그 후로도 문화는 절뚝거리며 걷는다."

이스트의 제안은 니버 및 헌터의 분류법을 단일 모델로 축소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강점을 취한다. 그는 문화적 조건이나 역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적절한 방법을 다 고려하라고 촉구한다. 나는 특히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고 또한 역사를 통틀어 교회가 했던 다양한 선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 이스트에게 감사한다.

by Trevin Wax, TGC

동부교계 게시판

구세군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디너

연말 구세군뉴욕한인교회에서는 따뜻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크리스마스 사랑의 디너를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구세군뉴욕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

주소: 142-50 32nd Ave. Flushing, NY 11354

▲문의: 718-762-9613

IT 강좌 - 기업 업무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

네이버플러스는 25년 넘게 주요 기업 컨설팅 업무 및 대형 Enterprise Application을 구축한 실전 경험 온라인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강의기간: 1월 20일 - 3월 2일 (7주), 토요일 10:00 AM - 12:00 PM EST 오리엔테이션 및 첫 강의: 2024년 1월 20일(토), 오전10시-12시 (EST) 접수인원: 20명 (선착순), 수강료: $100.00

▲문의: (201) 461-0909 / neighborplus0@gmail.com - www.neighborplus.org

뉴욕미션합창단, 시니어웰빙개발센터 후원 음악회 후 사진촬영 했다

뉴욕미션합창단, 시니어웰빙개발센터 후원 음악회

뉴욕미션합창단(음악감독 제시 유)은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30분 시니어웰빙개발센터(대표 윤혜경)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시니어웨빙개발센터 대표인 윤혜경 선교사는 "음악회를 포함한 모든 사역이 선교와 연결이 되어있으며 부족한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더 크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안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고 인사했다.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한 음악회는 다니엘 송 인도, 한문수 목사(뉴욕원로성직자회 회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음악감독 제시 유의 지휘로 쳄버 오케스트라, 합창, 솔로(테너 조현우·소프라노 정은지·바리톤 김기환), 악기(바이올린 유안나·피아노 헨렌 김), 북춤(도인순) 등이 출연했다. 특히 올해 초에 새롭게 구성된 오카리나 앙상블과 챠임핸드벨 앙상블이 무대를 선보였다.

'기쁘다 구주오셨네-할렐루야'의 편곡한 곡을 합창단과 함께한 송은하 어린이의 솔로 찬양과 앵콜로 준비한 모세 뮤지컬은 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이날 참석한 모두는 고요한 밤을 비롯한 여러 캐롤송을 다 함께 찬양하며 아기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멋진 찬양의 무대를 선보였다. 모든 순서는 정관호 목사(뉴욕한인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음악감독이며 지휘를 맡은 제시 유는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연주자이며 지휘자로 60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룬다고 소개했다.

시니어웨빙개발센터는 합창, 우울증 상담, 기도모임, 미술, 운동, 게임, 일반 상담, 성경통독, 컴퓨터, 특강, 언어교육, 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분은 347-324-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4회 정기연주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제4회 정기연주회

성탄절 앞두고 선교를 위한 연주회로 열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단장 박영희 권사)은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전광성 목사)에서 제4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연주단은 2006년 창단되어 교계와 교회의 각종행사에서 찬양을 해 왔다. 성탄절을 앞두고 선교를 위한 연주회로 열렸으며, 수익금으로 5개 선교지(인도,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러시아)에 선교비를 전달했다. 단목 이만호 목사는 지난해 지원한 선교비를 통해 아프리카 우물사역으로 인한 어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소개하기도 했다.

연주회는 인도 이만호 목사(단목), 개회기도 이준성 목사(교협 직전회장단 회장), 인사 이진아 목사(회장)와 박영희 권사(단장), 축사 박태규 목사(교협 회장)로 문을 열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은 이진아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와 복음성가 메들리, 동요와 명곡 메들리, 크리스마스 노래 메들리 등을 공연했다. 뿐만 아니라 크로마하프 중주와 독주로 공연했으며, 캐롤에 맞추어 크리스마스 율동까지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게스트로는 뉴욕교계 찬양사역자 테너 김영환 전도사와 바리톤 이광선, 그리고 소프라노 이희정과 바리톤 임관순 성도 등이 출연했다. 김원기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선교헌금기도를 했으며, 신현택 목사(교협 증경회장)가 폐회 기도를 했다.

단목 이만호 목사는 "다윗이 연주한 수금 즉 크로마하프 소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지치고 상처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소리가 되며 회복과 기쁨을 주는 희망의 선율이 되기"를 희망했다. 회장 이진아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로마하프를 연주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를 선포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 52회기 이 · 취임식

목사상과 교회상을 바로 세워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사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52회기 이·취임식이 12월 11일(월)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열린 가운데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를 표어로 출발한 52회기 회장 정관호 목사는 "목사상과 교회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회개하고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자로서 교회의 양무리를 신실하게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사역을 기꺼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며 "뉴욕목사회 52회기는 많은 임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목사회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모든 목사회 회원들과 교회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후원을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설교를 맡은 최창섭 목사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빌 1:20)"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과 같이 온전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 후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시간을 가졌다.

직전 회장 김홍석 목사는 "임원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목사회를 잘 섬겨 오늘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52회기 동안 이어온 목사회 역사의 본을 받아 교훈을 받아서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52회기 목사회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상일 목사와 황상하 목사가 축사했으며 김정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권케더린 목사(여성특별분과)의 폐회 및 만찬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 52회기 이·취임식 후 사진촬영 했다

더나눔하우스, 감사의 밤 단체 사진촬영 했다

더나눔하우스, 쉘터 마련 및 비전 나눔을 위한 감사의 밤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는 쉘터 마련과 비전 나눔을 위한 감사의 밤을 12월 10일(주일) 오후 5시 KCS(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했다.

박성원 목사는 "12년 전에 지하방 서블렛으로 시작으로 170여 곳에서의 후원과 200-300명의 후원자들이 함께 금년 6월에 쉘터를 마련하고 11월 28일 리본 커팅식을 하고 입주함으로 비로소 우리의 꿈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되었다"며 "모든 후원자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세미나 및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금 들어올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우진숙 국장(AM1660, K라디오) 사회로 열린 후원 감사의 밤은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영상메세지,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가 기도했으며 방지각 목사(상임고문)가 메시지를 전했다.

방지각 목사는 '기억할 것은 (행 20:35)'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축사는 Ron Kim(뉴욕주 하원의원), 김의환(뉴욕총영사), 김광석(뉴욕한인회 회장), Holly Park권사가 담당했다. 이어 Henry Lopez(Founder of Anchor House)의 격려사가 있었다. 오연률 권사, Holly Park 권사, 최재복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모든 순서는 김명옥 목사(KCC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더나눔하우스는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어 회복시켜 자립하도록 돕는 기관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복음 메시지(예배·성경통독·소그룹워크샵), 전문가 상담, 자립과구직, 사회복지서비스, 중독치유 및교육, 역이민자립과정착 등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문의는 718-683-8884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2023 국제장애인의 날 행사 후 사진촬영 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2023 국제장애인의 날 행사

"숨겨진 보배를 찾아내어 열매를 맺은 섬김의 30년"

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노기송 목사)는 12월 7일(목) 오전 10시 유니온 플라자 양로원에서 2023 국제 장애인의 날 행사(우리 서로 잡은 손)를 개최했다.

노기송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는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마지막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봉사자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돕는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 모두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홍선 목사는 시편 1:3 말씀을 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자손이 잘되고, 편안해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며 "마지막 경주에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어 편안함을 누리고 선한 열매 맺는 승리자가 되라"고 강조했다.

이경원 장로(이사장)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주님이 찾던 사람일 것이다"며 "그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했다. 매달 말씀으로 섬기는 박마이클 목사는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여인에게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일을 30년 동안 하게 하셨다"고 말하며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국제장애인선교회와 임선숙 사모 및 이사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로 축사했다.

이어진 2부는 뉴욕장로성가단, 밀알여성선교합창단의 합창,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의 안무, 정인국 장로의 바이올린, 유요선의 트럼펫 연주, 뉴욕장로성가단과 함께한 우크렐레 합주, 소프라노 이애실, 조동현, 이희상의 독창 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 무대는 전출연진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 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목사 12월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12月1(금)	미국(U.S.A) LA 희망찬교회(준비위원장 백지영 목사, 평통 미주 상임고문)
2(토)	미국(U.S.A) LA Vision Church
3(주)	미국(U.S.A) LA Sams Community Church(Pastor.Sams)
3(주)	미국(U.S.A) LA 은혜선교교회
4(월)~5(화)	미국(U.S.A) Las Vegas 늘푸른교회(노은철 목사)
6(수)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임인철 목사)
7(목)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8(금)	한국(KOREA) 17시30분 도착
9(토) 정오	남서울중앙교회(Elders year-End) Gathering
10(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1(월) 오전	연세대학교 목회자동문 송년의 날 주관 : 연세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준 목사, 사무총장 이강봉 목사) 장소 : 연세대 백양누리
11(월) 오후	부천예림교회 주최: 느헤미야부흥사회(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1(월)~12(화)	전주 샛별교회(원장 박순자, 원목 최충만 목사) 010-3678-5942
13(수) 오전	남양주 늘푸른진건교회(이석우목사) 010-2250-4690
13(수) 저녁	서울대학교 ABKI 총동창회(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2층 무궁화홀) Benediction
14(목) 오전	국제신학교(학장 강영준목사) 010-9260-1091
14(목) 오후	고양시 축복교회(지경휘 목사) 010-6374-4855
14(목) 오후	한미부흥강사단(KURS)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Special Concert 장소 : 가평공연홀 010-2238-3999
15(금) 오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Meeting Ceremony (준비위원장 Jasom Paik) 010-2238-4592
16(토) 오전	Business Blessing Event
16(토) 오후	World Gospel Mission Association
17(주)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18(월)~19(화)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Bethel 찬양교회(하용철 선교사)
20(수)~21(목)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지역 원주민전도성회 (준비위원장 하용철선교사)
22(금)	귀국
22(금)~23(토)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4(주)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25(월)	성탄절 Important Charity
2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9667-5321
27(수)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World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28(목) 오전	웃음힐링선교회(총재 이웃음 목사) 010-8947-2011
2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31(주) 자정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찬근 목사) 02-3411-9191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부에나팍교회 창립2주년 감사예배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결실을 이루는 교회"

부에나팍교회(담임 김성남 목사) 창립 2주년 감사예배가 10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김성남 목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한 부에나팍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결실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서 목사 찬양인도와 김성남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박근수 집사가 대표기도 했으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의 교회창립 2주년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심현식 장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이날 김성남 목사가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결실을 이루는 교회(사 1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부에나팍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며 "첫째 지혜로운 교회 총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모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넷째 재능(능력)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수있다. 다섯째 지식의 영, 실제적인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남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부에나팍교회는 창립2주년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김진홍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말씀잔치를 열었으며 9일(토) 오전에는 혈액기본검사를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의료잔치를 열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감사음악회를 가졌는데 캠코랄(지휘 이수정 집사), 실비치 기타앙상블과 6줄기타앙상블 등이 출연했다. 그리고 10일(주일) 오후 4시에는 탈북자 출신 허남일 목사(그날교회 담임)를 강사로 북한선교세미나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부에나팍교회 창립2주년 감사예배에서 김성남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3 밀알 대통령봉사상 시상식

2023 밀알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사랑의교실 봉사자 42명에게 수여"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9일(토) 오후 5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3개 지소에서도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어바인, 토렌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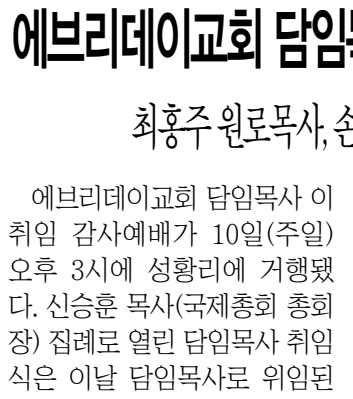
올해는 금상 11명, 은상 18명, 동상 9명, 그리고 CONGRESSIONAL AWARD 4명 등 총 42 명의 학생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원이 서명한 봉사상이 수여됐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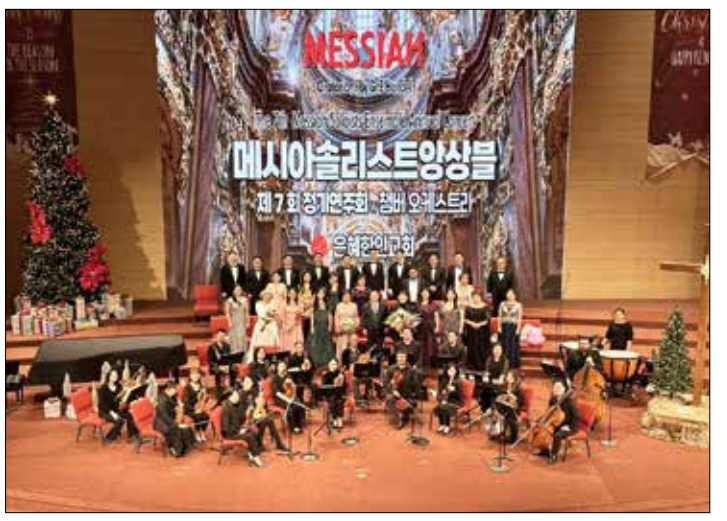
이대 남가주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정기총회와 송년회가 지난 12월 3일(주일) LAX 힐튼호텔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선언, 기도, 교가제창에 이어 동창회장 인사말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캐서린 리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정현숙 회장의 이임사와 신임 조혜진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2부 순서로 열린 '이화인의 잔치'에서는 합창단 공연, 바이얼린 독주, 이화 골프부 댄스, 경품추첨과 게임 등으로 아름답고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7회 메시야솔리스트앙상블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메시야 솔리스트앙상블 제7회 정기연주회

메시야 솔리스트앙상블(단장 이사효, 지휘 제갈소망) 제7회 정기연주회가 8일(금)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사효 단장은 "7회 연주회를 은혜롭게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메시야'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보희 전도사 사회로 열린 이날 연주회는 파트1 예언, 탄생, 파트2 수난, 속죄, 파트3 부활, 영생으로 나누어 메시야 공연을 했으며 소프라노 김선영, 크리스틴 오, 윤예원, 헬렌 오, 엘토 조지영, 심제인, 원순일, 테너 오위영, 이규영, 김성봉, 베이스 채홍석, 크리스토퍼 방, 이사효가 곡중 솔로를 맡았으며 메시야 솔리스트앙상블은 성탄의 계절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한기홍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 기간에 헨델의 대표곡인 메시야 연주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이웃들과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평화를 기원하며 난민들을 위한 귀한 사역에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에브리데이 담임목사 이 취임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브리데이교회 담임목사 이 취임 감사예배

최홍주 원로목사, 손창민 담임목사 취임

에브리데이교회 담임목사 이 취임 감사예배가 10일(주일) 오후 3시에 성황리에 거행됐다. 신승훈 목사(국제총회 총회장) 집례로 열린 담임목사 취임식은 이날 담임목사로 위임된 손창민 목사와 교우들 서약, 총회장 공포 및 취임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이어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축사했으며 손창민 목사가 답사했다. 손창민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로 써주신 것에 감사하다. 돌덩이가 가슴에 얹힌 것 같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도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담임목회 사역이 기대가 되고 설렘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담임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 만나게 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왜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수없이 질문했다. 하지만 내안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광야는 낮추심에 목적이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열리기전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종옥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 사회로 열린 예배는 유준용 장로의 대표기도와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재문 목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고전12:25-2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신승훈 목사(국제총회 총회장)가 원로목사 추대, 공포, 그리고 원로목사패 증정을 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축사했으며 영상으로 김우정 선교사(캄보디아 헤브론병원 원장),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축사가 소개됐다. 이어 최홍주 목사가 고별사를 했다. 최홍주 목사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더 많이 섬기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우며 생각해보면 이런 큰 은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싶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오늘 취임한 손창민 목사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최홍주 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성탄 뮤지컬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창립 50주년 기념 성탄 뮤지컬 'The YN Christmas Express'를 16일(토) 오후 5시에 공연한다.

▲ 문의: (323)227-1400

LA사랑아카데미 K-5 겨울방학캠프

LA사랑아카데미(원장 최영미) K-5 겨울방학캠프가 1월2일(화)부터 5일(금)까지 열린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이다. 등록은 $220(점심, Kids Chef Wear, 재료비 포함, 형제자매 10%할인, LA사랑의교회 등록교인 자녀 무료)이다.

▲ 문의: (323)652-0999, (213)273-5534

달라스 코리안 챔버콰이어 연주회

달라스 코리안 챔버콰이어 연주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19일(화) 오후 7시30분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972)258-0991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 초청 특별 콘서트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 초청 특별 콘서트를 22일(금) 오후 7시에 갖는다.

▲ 문의: (323)262-9191

베델교회 임직감사예배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17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거행된다. 이날 말씀은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가 맡는다.

▲ 문의: (949)854-4010

제2회 밀리터리 패밀리 나이트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제2회 밀리터리 패밀리 나이트 행사를 16일(토) 오후 5시 본교회 사회관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한, 미 현역 군인가족, 리저브 가족, GS 가족들을 대상으로 갖게 된다.

▲ 문의: (808)488-3018

남서부지방회 목사, 장로 송년모임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목사, 장로 송년모임이 17일(주일) 오후 4시30분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 328-2200

LA챔버콰이어 콘서트

LA챔버콰이어 2023 겨울 정기연주회가 16일(토) 오후 7시 글랜데일제일감리교회(134 N Kenwood St, Glendale CA)에서 열린다.

▲ 문의: (213)361-09305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신임회장에 강민석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는 2023 총회를 9일(토) 오후 4시 용궁에서 열고 신임회장에 강민석 감사한인교회 지휘자와 부회장에 찬양사역자 랜디김을 선출했다. 강민석 회장은 "교회음악협회에서 10년 정도 사역했으며 회장이 되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정상 하지 못했었다"며 "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2024년 회기동안 교회음악협회를 잘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임한 전현미 전 회장은 "팬데믹까지 6년간 교회음악협회에서 회장으로 섬겼다"며 "임원 선생님들이 도움으로 교회음악협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겠지만 신임 강민석 회장을 도와 협회가 더욱더 발전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미 회장 사회로 열린 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김혜정 회계가 2023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했으며, 회장단 선출시간을 갖고 강민석 부회장이 회장에 랜디 김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이날 토의사항에 본협회 회장이 되려면 협회에 3년이상 활동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날 총회는 주기도문으로 마쳤다. 한편 강민석 부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조영석 목사가 기도했으며 전현미 회장이 골로새서 3장 23-24절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헌혈위해 뭉친 교회 "대한민국 '피로회복' 책임질 것"

네 번째 헌혈 캠페인 시작, 오는 성탄절부터 내년 4월 부활절까지

헌혈로 생명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포 키즈(FOR KIDS)' 캠페인이 재개됐다. 대한민국피로회복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의료원장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25일 성탄절부터 내년 4월 부활절까지 네 번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신촌과 강남 등 전국 세브란스병원을 망라한 연세의료원에서 치료받는 소아암 어린이, 희소난치병 환우를 위해 1500장의 헌혈증서도 기증했다.

발대식에는 최성은 지구촌교회 목사를 비롯해 이재훈(온누리교회) 지형은(성락성결교회) 이인호(더사랑의교회) 문대원(대구동신교회) 목사, 이종성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윤동섭(연세의료원) 황유성(한마음혈액원) 원장 등이 배석했다. 캠페인은 목회자 모임 '사귐과 섬김' 회원인 지구촌교회와 온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신촌성결교회를 비롯해 성남시기독교연합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교회 등 한국교회 연합 사역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이름인 '피로회복'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피로 누군가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캠페인은 2020년 12월 최성은 지구촌교회 목사가 코로나19로 부족해진 혈액을 한국교회가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사귐과섬김 회원 교회들이 동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은 교회와 기관, 병원이 연합하면서 확대됐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199개 교회, 3만500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텀블러 등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2억3400만원을 모금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두 번째 캠페인은 소아암 어린이 회복을 위해, 세 번째 캠페인은 연세의료원과 협력해 희소난치병 환우를 지원하는 등 결실을 거뒀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는 "온 성도들이 그동안 캠페인에 참여하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며 "올해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헌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총무 문대원 대구동신교회 목사는 "복음주의권 선교대회인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총체적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로잔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것이 K-시골 목사의 삶' 감동 불러일으킨 방송

KBS '인간극장'에서 소개된 '목사님의 이중생활'

전북 완주군의 산골 위봉마을에서 목회하는 60대 목사 내외의 삶이 방영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KBS '인간극장'에서 지난 11일부터 소개된 '목사님의 이중생활'의 안양호(60) 목사와 홍삼인(60) 사모가 그 주인공이다. 성도 대부분이 70~80대인 시골교회 '위봉교회'를 이끄는 안 목사 내외가 20명 남짓 성도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자세히 방송됐다.

안 목사 내외는 6년 전 위봉교회에 왔다. 안 목사는 예배 때 설교는 물론, 기타를 메고 찬양도 인도했다. 홍 사모는 예배당 뒤편에서 오카리나를 연주했다.

안 목사 내외는 마을에서 해결사를 자처했다. 안 목사의 집에는 큰 농사를 짓는 집 수준의 농사 기계가 즐비했다. 안 목사는 트랙터를 직접 끌고 나가 마을 주민의 밭을 갈았다. 주일엔 거동이 불편한 성도를 모셔오는가 하면, 예배를 마친 뒤 식사 준비는 홍 사모가 주도했다.

방송에는 트럭을 개조해 붕어빵 봉사를 하는 모습도 나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적은 차량에는 발전기까지 있었다. 안 목사 내외는 이 트럭으로 지역 목회자와 함께 관광지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안 목사는 현재 목회하는 교회를 직접 수리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안 사모는 "1년간의 공사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와서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 발에 못이 4개나 박히는 일도 있었지만 뜻을 꺾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다시 세워진 교회는 마을의 문화센터, 사랑방 같은 곳이 됐다.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며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는 안 목사 내외의 이야기는 오는 15일까지 전파를 탈 예정이다.

"교리교육, 다음세대 믿음의 뿌리 내리는데 큰 도움"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 광주 · 대구 · 서울서 콘퍼런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총회교육개발원(이사장 송태근 목사)이 교회학교 교리 교육 교재인 '하나 바이블'을 펴내고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콘퍼런스(사진)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1학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2학기)'를 통해 각각 성경론·신론·성령론·십계명·교회론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편집돼 있다.

앞서 총회교육개발원은 지난 4일과 7일, 9일 각각 광주 동명교회, 대구 범어교회, 서울 왕십리교회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노영주 총회교육개발원장은 "이단과 무신론이 확산하는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교리 교육"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교리 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다음세대가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의 일터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우자"

한국CBMC 부산총연합회, 기독실업인 초청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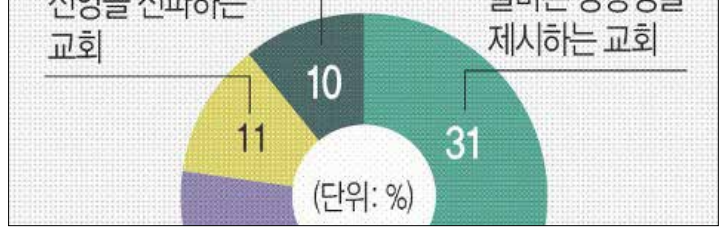
㈔한국기독실업인회 부산총연합회(부총연·회장 박보서)가 지난 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23회 기독실업인 초청 CBMC 데이(사진)를 개최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전 11:1)를 주제로 한 CBMC 데이는 연중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로 꼽힌다. 회원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한국CBMC 부총연은 국내와 해외를 포함, 총 53개 지회가 있다.

행사는 총 4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만찬에 이어 2부 예배와 특강시간은 박남을 부총연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유실근 증경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브니엘교회 김도명 목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살전5:16~1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해 형통을 누렸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박보서 부총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일터를 성경적 관점으로 세워 나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부총연 직전회장인 ㈜머뭄건설 김현수 회장은 올해의 CBMC-MAN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과분한 상이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서는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 부부가 출연한 토크콘서트가 눈길을 끌었다. 안 장로 부부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으로 공연을 통해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개신교 호감도 3년 만에 '28점→33.3점' 큰 폭 상승한 까닭은

한국리서치 '2023 종교인식조사', 2020년 대비 상승폭 최대 '고무적'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여타 종교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시점 이래 개신교 호감도가 타 종교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종교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33.3점을 기록했다.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52.5점, 51.3점으로 호감도 1, 2위를 차지했다. 원불교는 29.4점을, 이슬람교는 14.3점으로 개신교의 뒤를 이었다. 호감도는 감정 온도 방식으로 측정해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긍정적이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으로 평가한다.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관련, 종교계의 공공성 증진을 꼽았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 교수는 "일반인은 모든 종교에 대해 교리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똑같이 기대한다"며 "올해 주요 재난 현장에서 종교계가 보여준 구호활동 등의 노력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호감도 상승을 보인 개신교의 경우, 지난 3년 동안의 개신교 행보가 비개신교인이 바라는 한국교회의 미래상과 부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지닌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최근 발표한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통계에서 비개신교인은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 제시하는 교회'(31%)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24%) 등을 꼽았다. 기독교계 내부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섬김활동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가조찬기도회 · 예수가족교회 "따뜻한 겨울 되세요"

연탄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사랑

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나지막한 산자락에 있는 우용식(65)씨 집 앞으로 삼삼오오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이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기 위해 온 경기도 예수가족교회(신성남 목사) 교인들이었다.

신성남 목사는 "우리가 전하는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며 반색했다. 교인들은 연탄 1000장을 우씨 집 창고에 가지런히 쌓았다(사진).

교인들을 돕던 우씨는 "연탄 가격이 많이 올라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서 겨울을 나려고 했는데 국가조찬기도회와 교회가 큰 사랑을 주셔서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이날 배달한 연탄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봉관 장로)가 지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이날 고양시(시장 이동환)에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 이동환 시장도 연탄 배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봉관 회장은 주호식 국가조찬기도회 운영위원을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연탄을 사용해 겨울을 나야 하는 가정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면서 "오늘 전한 연탄의 훈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도 느낄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편으로 자녀에게 감정의...

〈2면에서 계속〉

감정을 항상 믿어서는 안 된다

시편 73편에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는 시인을 만난다. 그는 시기와 탐욕에 자신을 내맡기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강렬한 느낌이다(22절). 그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2절). 내내 신실하게 행하던 그가 거의 실족할 뻔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그의 마음과 관점이 바뀌는 것을 본다.

자신의 감정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는 자녀에게 시편 73편 같은 시편을 읽게 하라. 자녀가 부서진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가르침과 동시에 오로지 감정만이 삶의 원동력이라는 개념에 당당히 맞서도록 가르치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만의 진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내 솔직한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한다(예. 17:9-10). 감정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속아 잘못된 길로 들어설 것이다.

진리의 표준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감정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다. 행여라도 감정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지 우리는 수시로 감정을 성경과 비교해야 한다.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를 배반한다는 말이다.

자녀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 주라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는 자녀의 눈에 마치 감정만이 유일한 실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감정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끌 수는 없다. 그들이 감정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장점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감정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타락한 감정을 지닌 존재로 존재하는 현실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삶에서 감정의 위치를 인정하고, 더불어서 죄에 대한 충동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얼마든지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타당성을 분별할 자격을 가진다.

우리 문화는 감정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것 같다. 감정을 항상 신뢰하거나, 아니면 아예 감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쪽도 진짜 회복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건전한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시편을 지침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더 나은 방법을 보여 주라. 그것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올바르게 느끼도록 가르치기 위해 성경 전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다.

by Courtney Reissig, TGC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4)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위로의 문화를 보며 청년들과 대화를 생각한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라는 길거리 현수막을 붙였다가 호된 꾸중을 듣고 내린 일이 최근 한국에서 있었다. 중앙일보 문소영 문화전문기자의 "'서장훈식 위로' 왜 떴을까… '청년비하' 야(野)가 되새길 때"라는 오피니언을 읽으며 우리 교회를 생각나게 한다. 청년들을 비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잘못했다며 야당에서 내린 길거리 현수막이라니까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였나 보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청년들을 향하여 있고, 그 청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2018년 출간한 베스트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에서 저자 백세희는 기분부전장애 상태를 솔직하게 말함으로 청년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지난 해에도 '꿈은 모르겠고 돈이나 잘 벌고 싶어'라는 자기계발서는 고시원 생활 탈출이란 목표를 여러 개의 부업을 하며 달성하는 청년의 경험담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 해도 괜찮아'라는 위로를 주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가 김제동이라는 토크쇼 진행자가 말하는 것과 서장훈이라는 농구선수 출신의 말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김제동은 "주위에서 취업 압박이 들어오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괴롭다"는 청년에게 "아무것도 안하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 그렇게 있으면 돼, 괜찮아. (…) 뭘 하려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가. 젊은 친구들한테 왜 취직 안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려면 자기들이 즉각 즉각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으니 인생을 즐기라고 하였다. 그런데 서장훈은 뭔가를 이루려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김제동식의 위로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위로받아 공감되고 통쾌한 감정이 들 수 있으나 서장훈식의 얘기를 들으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더 위축되고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두 반응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위로가 좋은 위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하는 공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구원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값을 치루지 않고 받은 것이다. 적극적인 공감은 기독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또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하고, 추수하기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점을 발견하여야 하는가? 많은 경우에 세상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시대에 따라 그 열광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렇게 세상은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치우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덕을 쉽게 잃어버린다. 사람들은 치우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치우치는 의견에 더욱 동조하고 그 인기를 위해 심지어 거짓이라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섣부른 주장과 위로의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젊은이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의 장을 열기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나 다르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일을 일단 멈춰 달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은 공감의 시작이다. 그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자세를 바꿔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헤매고 있다.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변화하는 관점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데 부지런하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는 관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세대 간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해 의도적인 접근을 위한 태도가 중요하다.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성세대의 노력이 있다면 젊은이들과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를 찾아내어 대화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인권의 이슈, 공정성, 또한 환경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렇다고 높은 이상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는 헌신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이 많다. 젊은이들은 모든 부분에 재미와 함께 연결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헌신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정하지 말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을 바로 주기 전에 질문부터 하라. 기성세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더 많은 기간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답을 주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답을 주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과 경험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심있는 질문을 하고 생각을 들어줄 때 대화의 문이 열린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상적인 언어와 스타일에 맞는 대화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공손한 언어 스타일인지 직설적인 언어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스타일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보통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표정, 몸짓 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언어 톤과 어조를 사용하는 것도 대화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는 대화가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더욱 젊은이들에게는 가짜나 인위적인 언어적 표현이 대화의 문을 닫게 하는 장벽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감정의 공유가 없이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진솔한 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대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온 기성세대에게는 젊은이들과의 대화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 솔직한 감정 표현은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다.

모든 대화는 유연성을 가지고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대화 중에 유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라의 정상들이 모인 국제적인 외교 테이블에서나 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고 모든 주제를 정하고 만날 수 있지만 모든 대화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여 대화 중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발전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는 갈등을 봉합하며 태어난다. 모든 관계는 갈등이 전혀 없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 갈등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은 지혜롭게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 동의할 수 없는 관점이나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비판해야만 한다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비판을 바로 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나 비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공격받는다고 생각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주관적인 견해를 피하고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말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모호하게 오해할 만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강점과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선 방안의 제시가 없는 비판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확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언어와 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격적인 언어나 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단어의 선택과 낮은 톤의 대화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상대방 개인과 문제를 동일시 하지 말고 분리하여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가치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비판을 받는 것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흔히 느끼는 감정은 오해하고 있거나 비판을 받는다는 느낌이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역사는 변화해 왔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비판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여야 한다. 먼저 감정을 조절하고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공격적인 언어나 비꼬는 듯한 언어는 화를 나게 하지만 곧장 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비판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개선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상황에 맞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반격하지 말고 대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화를 끊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비판이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무심하게 나왔을 수도 있음을 알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중재자를 활용하여 중립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건 상관없이 젊은 세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5)

강태광 목사
(윌드쉐어USA대표)

루이스의 새엄마 무어 부인

C. S. 루이스의 삶은 평탄하고 투명했다. 부모, 형제, 아내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든 것이 공개된 삶이었다. 루이스는 이렇게 살아도 비난받을 일이 거의 없었고, 의심스러운 삶도 거의 없었다. 옥에 티가 있다면 루이스 삶에 찾아온 두 여인이었다. 한 여인은 루이스가 뒤늦게 결혼한 헬렌 죠이 데이빗맨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루이스 친구(패디 무어/Paddy Moore)의 어머니로 30년 정도를 함께 살았던 제니 무어 부인(Janie Moor)이다.

가정이 있던 여인 헬렌 죠이 데이빗맨을 만나 사랑했고, 이혼한 그녀와 결혼했던 루이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친구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를 크게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사한 친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여 년을 함께 살았던 무어 부인은 오해와 구설수를 낳았고 지금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C. S. 루이스는 1917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가 대학 생활을 하자마자 1차 장교 후보생 과정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받으며 룸메이트로 훈련소 동기로 패디 무어(Paddy Moore)를 만나 절친이 되었다. 훈련을 마친 C. S. 루이스와 패디 무어는 프랑스 전선에 투입되기 전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았다.

루이스와 패디 무어는 한 달간의 소중한 휴가를 알차게 보냈다. 그들은 3주간 패디 무어의 집에서 같이 보냈고 루이스는 벨파스트로 건너가 한 주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혹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남은 사람이 전사한 친구의 부모님을 돌보기로 맹세하였다.

패디 무어와 C S 루이스는 1차 대전 격전지였던 프랑스로 투입되었다. 특히 무어 소위는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카이저 전투(Kaiser Operation)에 배치되었다. 독일은 미국이 완전히 참전하기 전에 승기를 잡으려고 강한 공격을 했고 영국군은 강력하게 저지했다. 이 전투 개시 후 곧 무어는 실종되었다. 무어는 이 전투 초기에 전사한 7,512명의 영국 육군 전사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무어 부인은 아들의 전사 소식을 통보받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무어 부인은 C. S. 루이스의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의 위로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다. 두 아들 패디 무어와 C. S. 루이스의 맹세를 언급하며 루이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아들인가를 설명하며 루이스와 함께 살 것을 천명했다.

제니 킹 무어 부인은 목사의 딸이었다. 윌리엄 제임스 애스킨 목사(Rev. William James Askins)의 6남매의 첫째로 태어났다. 제니 킹 애스킨은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으나 그녀가 18살 될 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후 그녀는 다섯 동생의 어머니 역할을 했고, 5년 후 아버지마저 죽자 그녀는 동생들의 부모 역할로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다. 이 경험이 그녀를 주도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 되게 했고, 이 모습이 훗날 루이스와 함께 살면서 나타났다고 본다.

제니 킹 애스킨은 1897년 8월 1일 목사의 아들인 코트니 에드워드 무어(Courtenay Edward Moor)와 결혼했다. 목사의 딸과 목사의 아들이 결혼했으니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들(패디 무어/Paddy Moore)과 딸(모린 데이지 헬렌 무어/Maureen Daisy Hellen Moore)을 두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 만인 1907년에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브리스틀(Bristol)로 이사했다.

옥스퍼드를 입학하자마자 군대에 입대한 아들을 통해 무어 부인은 C.S. 루이스를 만났다. 그리고 프랑스 전투에서 다친 루이스가 브리스틀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루이스를 돌봐주었다. 루이스는 아버지가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앨버트 루이스는 아들의 병실을 끝끝내 안 찾아왔다. 반면에 친구의 어머니 무어 여사는 루이스를 극진히 돌봐주었다.

군대에서 돌아온 C. S. 루이스는 1919년 1월부터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친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에서 자신을 돌봐준 무어 여사를 모시고 살았다. 루이스는 친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 제니 무어(Janie Moore)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봉양했다.

루이스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무어 부인과 함께 지냈다. 혹자는 C. S. 루이스가 그녀에게 한때 로맨틱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이스가 아버지 집을 머물 때는 그녀는 매일 편지를 루이스의 고향 친구 아서 그리브즈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어쩌면 성적인 관계도 맺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루이스는 평생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무어 부인은 루이스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살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으며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자신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열등감도 컸다. 목사의 딸로 성장했는데도 그녀는 크리스천도 아니었던 것이 확실하다. 루이스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자기는 소외되었다고 느꼈으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 하지 않았다.

C. S. 루이스가 무어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루이스의 형 워런은 불만이 많았다. 무어 부인은 C. S. 루이스에게 집안일을 맘대로 시켰고 잔심부름을 시키기가 일수였다. 심지어 루이스가 중요한 글을 쓰는 중에도 무어 부인은 루이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워런은 무어 부인이 루이스의 연구와 집필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무어 부인은 좋은 면도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따뜻한 여인이었다. 무어 부인 덕분에 그의 집은 친구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무어 부인이 루이스를 잘 돌봐주어서 루이스는 선천적인 소외와 고독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루이스 전기작가들은 루이스가 무어 부인과 함께 살면서 인생을 배워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쓸 수 있었고 주장한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학2:1-9) 찬 190장

학개선지자의 사역은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말씀하신 분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1) 순종자와 동행하시는(2,5)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4,8,9) 무엇보다 그는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만국의 보배(the desired of the all nations), 그리스도(6,7)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여(7) 하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9)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 성전 안에 거할 때 누려집니다.(고전 3:16) 셋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히 일하라고 하십니다.(4-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성된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화 학개의 목회사역 (학2:10-23) 찬 171장

성전재건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함으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의 마음에 부흥의 불을 붙인 그의 메시지는 어떠하였습니까? 첫째, 죄를 지적했습니다. 제사장의 생명인 거룩을 상실한 죄를 책망했습니다. 아담이 잃은 거룩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을 회복합니다. 둘째, 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룩 상실로 징계로 포로가 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1:6,9, 2:17) 그리스도인의 믿음 상실은 모든 일의 불가능을 가져옵니다.(빌 4:13) 셋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1:21절의 진동의 약속은 당대의 성전재건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개시대 보다 더 행복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완성된 영광을 늘 누리기 위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수 신실한 복음사역 (욘1:1-6) 찬 323장

이스라엘 북 왕국, 여로보암 2세(782-753 B.C.) 때의 앗스르 수도,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개인에게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1) 빈들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요나에게도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을 받은 소명자입니다.(막 16:15) 둘째, 받은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2) 여기서 외친다는 것이 오늘날 설교(to proclaim)를 가리킵니다.(딤후 4:2) 신자는 설교를 존중히 여기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부름에 순종해야 합니다.(3-4) 요나의 불순종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도피행각에 일어난 대풍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복음일꾼이 됩시다.

목 요나의 참 회개 (욘1:7-17) 찬 279장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증거가 요나의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참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책임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12) 제비에 걸린 요나는 풍랑으로 인한 위험이 자기 때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눅24:35)는 십자가 우편 강도의 책임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또한 그는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는 추하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9) 전혀 도움 없음을 깨달은 영적 가난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마 5:3) 참 회개는 가난에서 애통함으로, 애통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17)

금 능력의 기도 (욘2:1-10) 찬 532장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복된 사실이 그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요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고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풍을 만나 제비에 당첨되어 조롱거리가 되어 물에 던지워져 물고기 배속에서의 고생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그가 당한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너무 나 귀한 일입니다. 절망의 자리라도 숨을 쉴 틈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요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이미 응답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감사와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심정을 토하고 이미 받은 줄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모든 일을 이기게 합니다.

토 부흥의 참 증거 (욘3:1-10) 찬 279장

연단 받은 요나는 니느웨 성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부흥의 불이 12만명의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이 부흥이 왜 놀랍습니까? 첫째, 말씀의 능력이 파급되었기 때문입니다.(2-3) 하룻길을 행하며 외친 메시지가 왕에서부터 신하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5-6) 성경말씀이 부흥의 핵입니다. 둘째,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7-8) 선포된 경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왕에서부터 금식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입니다.(9-10) 하나님은 그들의 참 회개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부흥의 심령을 구합시다.

기독교교육 (39)

메리 크리스마스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중고등부 시절이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친교실에 모여 선물을 교환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교회당에서 가까운 교인들의 집으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전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래는 추억입니다. 이민 자녀들은 그런 추억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의미, 유래, 풍습, 기념하는 방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면 크리스마스를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된 것은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 170-235)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린 것을 기념하는 수태고지절(受胎告知節, 3월 25일)로부터 아홉 달을 계산하여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 날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전날의 전야제를 의미합니다. 과거 구약성경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24일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구약에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어 아침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이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를 갖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을 기리는 풍습입니다. 황금은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금속으로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에 사용됐던 향료로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며,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했던 방부제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달빛 비취는 숲속에서 본 전나무(fir tree)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무를 잘라 집안에 들여놓고 장식했던 데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7,8세기 영국의 성자 보니파스(Boniface)에 의해 시작됐다고 하는 설과 중세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계절에 공연됐던 연극 "Paradise(낙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초록색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사용되는 양초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잎가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할리(holly, 호랑가시나무)는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며, 할리의 빨간 열매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포인세티아(Poinsettia)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20년대 첫번째 멕시코 대사였던 포인세트(Joel Roberts Poinsett)가 미국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포인세티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슬토우(mistletoe - 겨우살이)는 나무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식물로서 그 줄기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사용하는데, 기독교 이전 시대 서양에서는 남성성의 상징이었으며, 켈트에서는 불임치료와 해독제로 사용됐습니다. 로마시대에는 미슬토우 밑에서 원수들이 화해하고 우정에 금이 간 친구들이 화해했으며, 16세기 영국에는 남자가 여자를 미슬토우 아래로 데려가면 여자는 반드시 키스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미슬토우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상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종(bell)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렸던 데서, 또한 공적인 소식을 전하는 관리(town crier)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종을 사용했던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종은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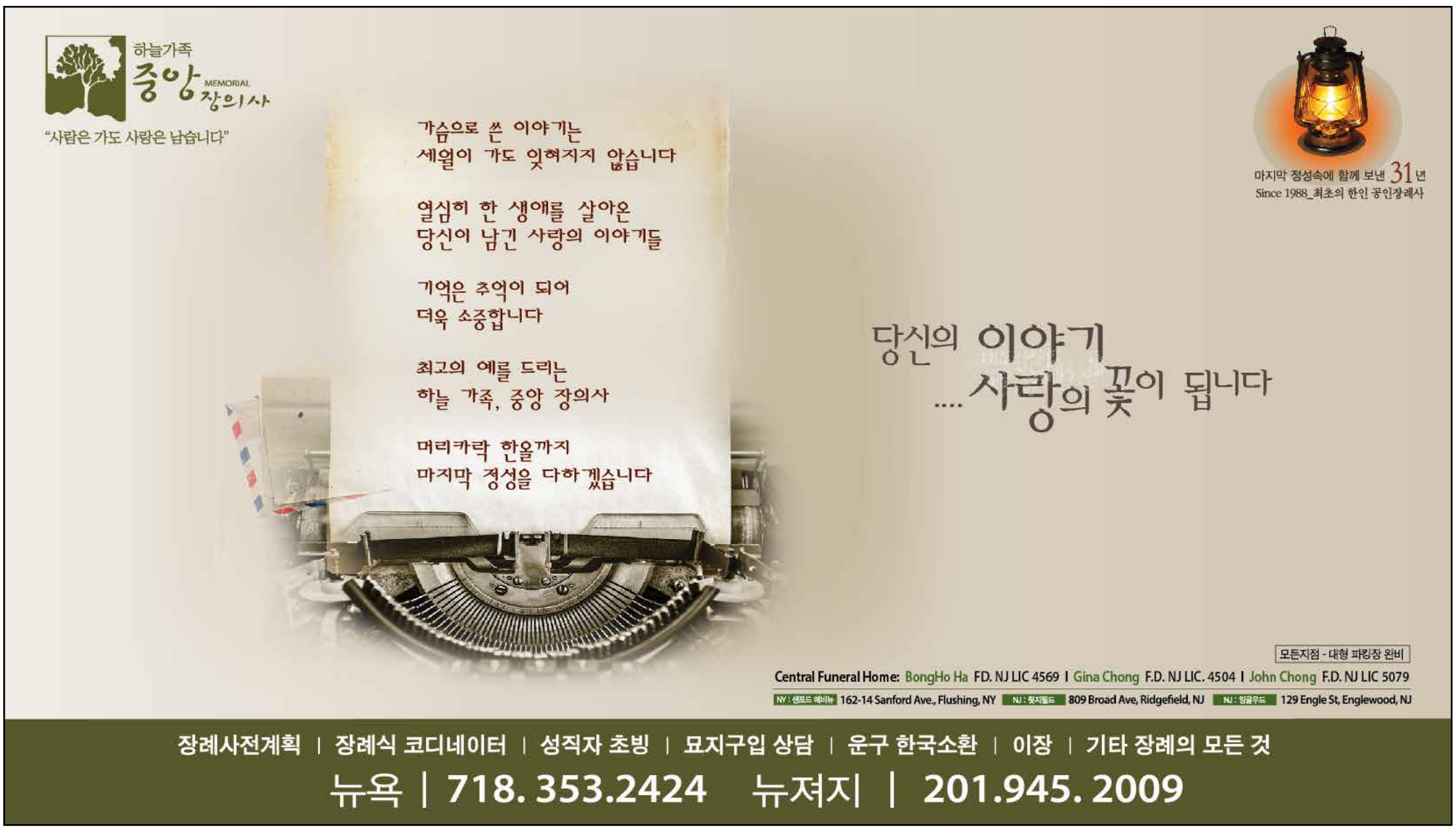
지팡이 사탕(candy cane)의 하얀 재료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빨간 줄은 십자가의 피를, 구부러진 모양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탕의 박하향은 우슬초(hyssop)의 쓴맛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우슬초는 사람이나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는, 1611년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크리스마스 카드와 비슷한 것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최소한 400여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843년 콜(Henry Cole)의 제안에 따라 호슬리(John Horsley)가 그림을 그림으로써 크리스마스 카드가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 클로스(Santa Claus)는 그리스의 성자 니콜라스(Saint Nicholas)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니콜라스는 4세기 소아시아(지금의 터키)에서 활동했던 목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고, 아이들의 신발에 동전이나 과자를 몰래 넣어놓고 갔습니다. 특히 궁핍한 한 가정의 딸들을 위해 결혼지참금을 지불해준 일화가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12월 25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sun)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Son)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이웃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의미있게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jonk@dbu.edu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7.성경 속 아버지의 유형

일반론적인 면에서 현대판 아버지(아빠)의 유형을 소개한 바 있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유형은 어떠한지 찾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자녀를 편애한 아버지상 (야곱)

편애의 희생자였던 야곱은 여전히 편애를 대물림하려고 했습니다.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이것이 형제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편애하는 태도는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를 자아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거친 후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지만, 자식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13년 동안 한많은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 바르게 훈계, 책망 못한 아버지상 (엘리 제사장)

잘못을 보고도, 바르게 훈계, 책망,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녀를 패륜아로 만듭니다. 성소에서 사무엘을 가르친 엘리 제사장은 지혜롭고 성별된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 재물을 탈취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했어도, 바르게 훈계, 책망하지 못하고 방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산기가 있었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주받아 멸문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3. 자녀 양육의 지혜를 간구한 아버지상 (마노아)

예루살렘 소라에 거주했던 단 지파의 마노아란 자의 아내는 오랜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마라"(삿 13:3-5)고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난 것을 화내거나 의심하지 않고 부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물었고(삿 13:11-12), 마침내 아이, 삼손은 태어났고, 그가 일러준 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사람, 나실인으로 경건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4. 외모 중심의 아버지상 (이새)

제 2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 선지자가 7명의 아들들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아들이 더 없느냐는 물음에, 이새는 여덟 번째, 말째가 있긴 있는데, 야밤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키도 크지 않고, 아담하며, 유약하여, 남성답지 않아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대외적으로도 내세우기엔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제왕감으로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초라한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이같이 외모 중심의 이새는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다윗을 무시하고, 잘 생기고 듬직한 외모의 아들들을 제왕감으로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고 말씀하셨습니다.

5. 용서와 사랑의 아버지상 (하나님)

누가복음 15:11-24에 나타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제멋대로 살려고 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하게도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났지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얼마 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하여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외로움과 향수, 배고픔으로 비로소 작은아들은 회개한 심정으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출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거지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탕자 아들은 아들되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길 자청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게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며,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며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편애하거나,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훈계, 책망, 징계치 못하거나, 외모 중심의 아버지가 되지 말고, 자녀 양육을 위한 지혜를 간구하며, 탕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남부투캉베시 종족

▲ 인구
130,000명

▲ 종교
이슬람교 90%, 민속 종교 5%, 복음화율 5%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와카토비섬에서 온 어부지만 밭농사도 짓는다. 금속으로 배를 만들기에 철의 일꾼이라 불린다. 해양 관광 산업이 발전했다. 면과 실크를 짜서 판매하며, 칼레두 파섬은 부드러운 섬유로 유명하다. 무슬림이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믿으며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려고 한다.

▲ 기도제목
1. 남부 투캉 베시 종족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2. 남부 투캉 베시 종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 헛된 마음은 기도해도 헛될 것이다. 우리는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 은밀한 기도 등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에 따라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청을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이웃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난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 19 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복음적인 주류교회을 중심으로 하여, 30 여 민족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국제선교대회가 열렸다. 2005 년 부터 대회장으로 섬겨온 필자는 국제패널회의에서 사회를 보면서, 미국내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다음의 의견을 함께 모았다.

영적 전투에서 교회에 침투하는 속임수를 쓰는 기만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가? "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내부로부터 일치를 분열시키는 잠재적인 위협과 침입을 분별하고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교회 복음 사역 방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진정한 복음적인 지역교회들과 함께 체크 포인트로 협의할 수 있는 일종의 채널을 추구해야 된다." 고 밝히면서, 미국교회는 어떻게 미국 내에서 성경적 가치에 기초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가? 미국교회는 어떻게 열방의 선교와 함께 진리로서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는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건전한 교리를 고수하고 신실함을 유지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조처를 해야 한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복음주의 미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복음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전체의 건전성과 합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관행에서 성경적 신실함과 건전한 교리로 돌아가는 것은 선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활력을 보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한결같이 복음의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 각 지역의 복음적 교회들이 협력하여 사탄의 속임수를 식별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 갑주를 입고, 진리의 복음을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paulchung0214@gmail.com

멕시코 교도소 사랑의 담요 보내기

Jesus Mexico (대표 최재민 선교사)는 매해 겨울철 멕시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보내기를 실시한다. Jesus Mexico는 많은 재활원들과 여러 교도소들, 캐러밴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랑의 담요 후원금을 보내실 곳은 / 주소: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문의: 최재민 선교사 (213-675-757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t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본/사/방/문

임원석 선교사 (멕시칼리 장로교신학대학총장)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로 양성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멕시칼리 장로교신학대학 개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를 마친 임원석 선교사가 본사를 방문했다. 임 선교사는 "그동안 매체를 통해 인터뷰나 소식을 알린 적이 없으나 뜻 깊은 개교 25년 행사를 가지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본지를 방문하게 됐다"며 사역을 소개했다.

△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정확히 30년 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지요. "왜 그 먼 곳을 가려고 하느냐, 한국에서도 오라는 곳이 많은데"라며 제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전도서12:1)에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동하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기 위한 것이 선교사가 되기로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우리 신학교의 학생들의 구호도 "오직 예수"입니다.

△ 명실 공히 신학교로 세우시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는 멕시코 중부 이북에 있는 유일한 멕시코 장로교 총회 산하에 속한 공신력 있는 정규 신학교입니다. 교회나 개인 모두가 선교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20년 후에 나와 내 가정이, 또 교회가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지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선교사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무런 맺어진 열매가 없이 철수하는 경우를 30년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장을 비유로 생각해보자면,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신력 있는 선교사역이 아니라면 제 인생을 투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남부 치아파스주를 중심으로 서로 언어가 다른 원주민 2세를 학생으로 선발하여 '사명감 있는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멕시코 장로교 총회 산하에 목사를 양성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멕시코 중부 이북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 사역하며 어려웠던 일,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1973년까지 멕시코는 상중 하로 3등분을 하여 북부는 감리교회가 중부는 침례교회가 남부는 장로교회가 선교하도록 조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에는 장로교가 아예 선교하지 않고 있었으며, 1993년 도착한 멕시칼리 시에는 인구 100만 명이 넘고 있었지만 장로교회는 개척교회 1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체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2/3가 되는 멕시코 중부 이북에 어떻게 장로교회를 통해 선교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당시 기초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멕시코 전체에 장로교회가 2500 교회에 500명의 목사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목회자의 수로는 장로교를 성장시킬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장로교를 통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미 장로교회가 있었던 남부 치아파스주를 중심으로 오하하까주 까지 신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25주년 행사에 멕시코장로교 총회 임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총회산하 신학교임을 증명하는 기념패를 붙이고 기념촬영.(왼쪽 세번째 임원석 선교사)

저는 이곳이야말로 신학교를 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이 가까워서 훌륭한 교수 초빙에 문제가 없으며 둘째, LA에서 210마일 지역에 위치하여 한인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셋째,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여름에 50도씩 올라가는 뜨거운 더위와 겨울에 얼음이 얼 때도 있지만 "광야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동하고 예수로 만족하며 살기 위한 것이 선교사가 되기로 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1998년 10월 21일 개교 예배에 참석하였던 한인 선교사들은 지금부터가 문제라며 경영을 걱정하면서 신학교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신학교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3명의 미국 선교사님들은 신학교 개교 이후부터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 재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졸업한 신학생들은 320명이 넘었으며 그중 절반 정도의 졸업생들이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면 건축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건축을 도운 교회가 100여 교회가 됩니다. 원주민들을 위한 촐족, 쎌탈족의 찬송가 32,000권도 보조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보람입니다.

△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멕시코 전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많은 학생 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장로교 총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신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총회가 1만 교회에 2만 목사가 사역하지만 멕시코는 현재 3500교회 800명의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어서 부족한 목회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멕시코의 많은 지역이 복음화 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신학교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희 선교지의 비전입니다.

25주년을 맞아서 뒤돌아보면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멕시코를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명감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자 기자〉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내가 처음 맞았던 성탄절

12살 빡빡 머리 중학교 2학년인 제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던 그 때가 봄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학습을 받기 위한 공부를 마치고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던 성탄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던지요. 엄하신 아버지의 노여움을 의식하면서도 집에 하나밖에 없는 석유를 넣어 불을 달려 어둠을 밝히는 호롱등, 거기에 풀을 대신해서 으깬 밥알을 창호지 쪽지에 발라 그 호롱불 등에 둘러 붙이고 "축 성탄"이라고 써서 집 대문 기둥에 걸어놓고 새벽 송을 위해 찾아올 찬양대를 손꼽아 기다려 맞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 믿고 보낸 처음 성탄입니다.

그 후로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이만큼에서 맞고 있는 성탄절, 불도 많고 등도 많고 오가는 곳에서 들려오는 성탄송도 많은데, 60여 년 전에 가졌던 그 기쁨도, 그 즐거움도, 그리고 그 흥분과 감격도 제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찾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4절, 5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 5)."

세월을 탓하고, 세대를 탓하고, 문화를 탓하지만 결국 모든 원인은 제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버린 저의 영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